

교정

세상을 지키는
따뜻한 사람들

05

Vol. 552
2022 May

역경을 발판 삼아
성공을 이루는



교정공무원의
꿈 이야기



Re: Vive

더 높은 도약을 준비하다



CONTENTS

페이스북 www.facebook.com/mojcor
네이버 블로그 blog.naver.com/mojcor
유튜브 www.youtube.com/교도소24시
카카오스토리 story.kakao.com/ch/mojcor

다양한 온라인 채널에서 교정본부의 이야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의 QR 코드를 인식하면
월간 〈교정〉 웹진으로
이동합니다.

Re:member

- 04 역사와 오늘 강릉교도소
- 12 생각의 접점 성공을 향해 달려가다
강릉교도소
- 14 응원의 선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는 복지를 선물하다
강릉교도소 복지과
- 18 물고 담하다 경험할수록 가까워지는 성공의 길
강릉교도소 교위 박인숙 & 교도 홍영선
- 22 교정의 가치 수용자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봉사 팔방미인'
강릉교도소 교정협의회장 구본례
- 24 취미의 공유 일일 파일럿 체험에 도전, 일상의 고도를 높이다!
홍성교도소 서산지소 한벗 교사
- 28 전문가에게 물다 감미로운 커피의 매력 속으로
서울구치소 교도 차경희 &
카페바리스타아카데미학원 원장 이소림
- 32 나도 패션왕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을 함께하다
홍성교도소 교위 이성덕·교위 김부경 부부
- 36 교정 안에서 참회의 기도로
지난날의 잘못을 돌아봅니다
- 38 교정의 일기 마음만 받겠습니다
서울구치소 교위 문규종

Re:mind

- 40 새로운 만남 범죄 피해자를 보는 다른 시선
임상수사심리학자 김태경
- 44 여행 속 휴식 사랑이 배가 되는 가족여행지
'봄'을 봄, '가족'과 봄
- 48 문화가 즐개 뮤지컬의 성공과 가족애를
한 번에 잡은 영화
- 50 맛의 탐방 맛과 보양을 상징하는 긴 물고기
장어
- 52 교정 리포트 교정공무원의 직무달진감이 직무몰입 및
직업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연구①
- 58 교정 NEWS
- 65 모범 공무원

※ 모든 활영은 감염병 예방 수칙에 따라
방역 수칙을 준수해 진행했습니다.

월간 교정 2022년 05월호 Vol.552

발행인 유병철 법무부 교정본부장 발행일 2022년 05월
주소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법무부(1동)
교정본부 홈페이지 www.corrections.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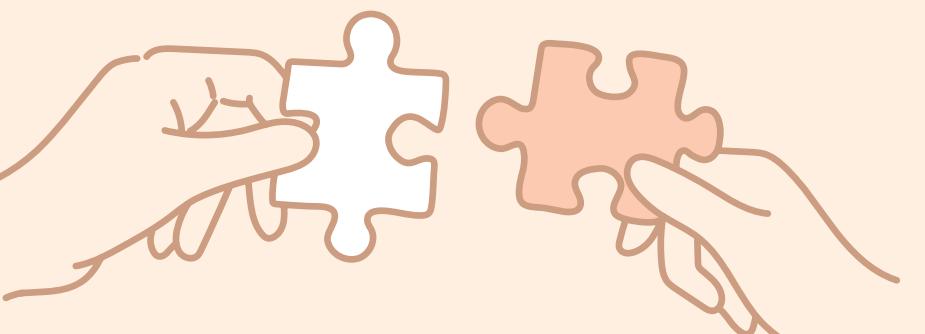
월간 〈교정〉은 웹진 또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서도 만나 볼 수 있습니다.
이 책의 무단전재나 복제를 금합니다. 수록된 내용은 법무부 교정본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www.cowebzine.com)

국민이 공감하는 법질서를 확립하다 교정의 가치를 만드는 강릉교도소



“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교정의 가치를 이어갑니다. ”

1971년 강릉교도소 개청 안내장



질서와 인권이 함께 숨 쉬는 교정

강릉교도소는 1971년 10월 26일 개청
이래 국민에게 신뢰받는 교정행정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사회 안정에 기여
하며, 수용자의 성공적인 사회 복귀를
지원합니다.





끊임없는 근무 환경 개선과 교정관리 체계의 강화

강릉교도소는 교정공무원의 근무 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또한 인권과 질서가 조화를 이룬 교정행정을 추구합니다.



“
소통과 공감을 바탕으로
열린 행정을 펼칩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열린 교정



강릉교도소는 아름다운 교정시설로 손꼽힙니다. 특히 유휴 습지 1만 2,600m²를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다락습지학습원으로 조성해 시민들에게 개방했습니다.



1990년대 경비교도대 경호팀



인권 존중을 바탕으로 질서를 확립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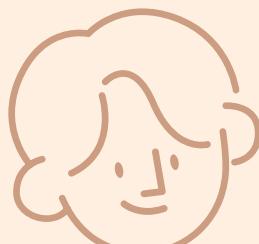
강릉교도소는 수용자의 인권 향상과 보호 그리고 국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며,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교정시설을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 신뢰받는 교정에는 인권 존중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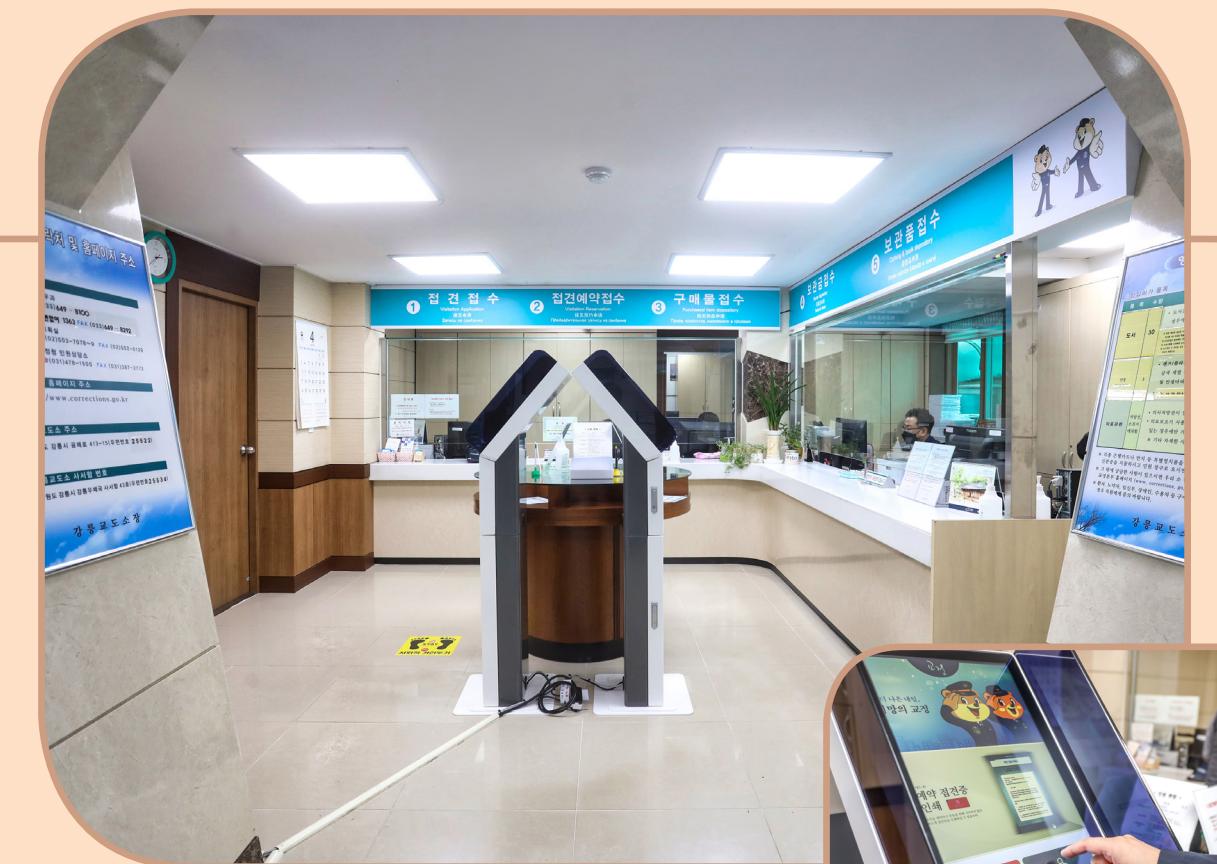
1980년대 을지연습 상황 보고





교정교화와 민원서비스에 충실하다

강릉교도소는 수용자에 대한 내실 있는
직업훈련을 통해 사회 복귀 후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현대적인
민원시설을 갖춰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합니다.



“
적극행정으로 민원인의
만족도를 높이며,
수용자의 교정교화에
충실합니다.”



역경을 딛고 일어서서 성공을 향해 달려가다

강릉교도소 직원들



개청 52년 차를 맞은 강릉교도소의
교정공무원들은 긴 역사에 어울리는
저력을 품고 있다. 이들은 '함께'라는 이름 아래,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고 성공적인 교정교화를
향해 달려 나간다.

글 강진우 사진 이정도

고난의 순간을 넘어서는



'긍정의 힘'

복지과장 안효정

어려울수록 긍정의 힘을 되새기려고 해요.
나와 동료들을 굳게 믿고, 다시 도전하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으로
꿋꿋하게 앞으로 나아가죠.



'상선약수(上善若水)'

교감 박기완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라는 뜻입니다.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말인데요.
물처럼 낮고 겸손한 자세로 일하기 위해
경포호 주변을 걸으며 마음을 다잡습니다.

나만의 극복법은 [] 이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교사 김보곤

흔하지만 그만큼 진리이기도 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을 되忸니다. 실패에서 무언가를
배워서 성공으로 향하겠다는 각오를 다지죠.



'격한 운동'

공업서기보 최재혁

축구, 배드민턴 같은 격한 운동을 하면
자연스럽게 땀을 흘리면서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복집했던 생각의 실타래가 풀립니다.
그래서 전 힘들수록 운동을 합니다.



'소주 한잔'

공업서기보 양용모

힘든 일이 생기면 그날 저녁 술 한잔으로
털어 버립니다. 그러면서 '나는 할 수 있다'라고
끊임없이 마음속으로 되뇌면,
다음날 기분이 좀 나아지더군요.



'지인들과의 수다'

공업서기보 조성용

지인들과 만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굳이 좋은 해법이
안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수다를 떨면서
생각이 차츰 정리되거든요.



'가족'

시설주사보 윤효철

가장 힘이 되는 존재는 역시 가족이죠.
가족들에게 고민을 말하고 격려와 위로를
받는 시간 자체가 치유이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는 과정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는 복지를 선물하다

강릉교도소 복지과



우리가 하루하루를 별 탈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편안함을 위해 노력하는 누군가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강릉교도소에도 교정공무원과 수용자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최상의 복지를 제공하기 위해 힘쓰는 이들이 존재한다. 바로 안효정 복지과장을 비롯한 복지과 직원들이다.

글 강진우 사진 이정도

발 빠른 전문성으로 끌어올린 복지의 풍미

1971년 개청 직후부터 지금까지 엄정한 법 집행과 발전적인 교정 교화를 실현해 온 강릉교도소는 50년 넘는 세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견고하고도 빈틈없는 강인함을 뽐낸다. 교정공무원의 업무와 수용자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각종 물품을 적기에 제공하는 한편 온갖 시설 유지 보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복지과 덕분이다. 여타 교정기관의 복지과가 그렇듯, 안효정 과장을 필두로 총 23명이 일하고 있는 강릉교도소 복지과도 '교정공무원과 수용자의 복지 및 편의 증진'을 영원한 목표로 삼는다. 이를 위해 안효정 과장이 가장 강조하는 업무 중점 사항은 바로 '즉시성'이다. 이에 따라 복지과 직원들은 언제든 교도소 내의 크고 작은 요청에 즉각 대응 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다.

"저희의 업무는 음식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막 조리를 마친 음식과 만든 지 꽤 지난 음식이 있다면, 사람들은 대부분 갓 만들어진 음식을 택할 겁니다. 풍미가 더 뛰어나기 때문이죠. 복지도 마찬가집니다. 교정공무원과 수용자가 어떤 사항을 요청했을 때 곧바로 나서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후에 대응하는 것보다 더 큰 만족감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업무 처리와 생활 편의에도 더 도움이 되겠죠. 복지과가 모든 요청과 사안에 대해 최대한 발 빠르게 대응하는 데 애쓰는 이유입니다." 복지과의 업무는 시설 유지 보수, 급양, 운전 등으로 전문화·세분



화돼 있다. 그렇기에 각자 자신이 맡은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기르는 것도 즉시성만큼이나 중요한 과제다. 더불어 강릉교도소의 복지망에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세상의 동향을 면밀하게 파악한 뒤 물품을 적절하게 수급하는 선견지명과 행동력도 강릉교도소 복지과가 강조하는 핵심 역량이다.

기지와 협동력으로 위기를 돌파하다

살다 보면 열심히 일하는데도 상황이 뜻대로 펼쳐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강릉교도소 복지과 직원들도 그간 업무를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맞닥뜨렸다. 그럴 때마다 위기를 넘길 수 있었던 원동력이 있으니, 바로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변혁이는 기지와 상대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고 움직이는 뜨거운 협동심이다.

“급식은 하루 세 번 방영되는 생방송과 같습니다. 대부분 사고 없이 잘 넘어가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때때로 당황스러운 일도 생기는데요. 그런 순간에도 급양이라는 생방송은 계속돼야 하기에 시시각각 순발력을 발휘합니다. 예를 들어 오븐을 활용한 신메뉴를 준비했는데 갑작스럽게 오븐이 고장 난다면, 그간의 경험을 최대한 살려서 재료를 활용할 수 있는 유사 메뉴를 완성해 식탁에 올리죠. 이러한 위기 대응을 위해 평소 업무 전문 지식을 꾸준

히 쌓는 일도 계을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협동심도 복지과를 어려움의 수렁에서 탈출시키는 탄탄한 동아줄이다. 올해 2월 말, 복지과는 코로나19로 곤욕을 치렀다. 전원이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2박 3일 동안 격리됐고, 이후 PCR 검사 결과에 따라 출근이 이뤄졌지만 인원 부족으로 인한 업무 공백이 불가피했다. 하지만 놀랍게도 복지과는 이 기간에 주어진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했다. 직원들이 서로 업무를 대신하겠다고 나서면서 빈틈이 순식간에 메워진 것이다.

“복지과는 각자 맡은 분야가 명확하게 나눠져 있다 보니 자칫하면 일부 업무가 마비될 수도 있는 위기 상황이었는데요. 출근한 직원들이 자기 일처럼 주변의 업무를 두루 돌보는 모습을 보면서 새삼 강릉교도소 복지과의 일원이라는 것에 자긍심을 느꼈습니다. 나아가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충분히 이겨 낼 수 있겠다는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굵은 땀방울로 완성하는 ‘모두의 복지’

복지과의 끈끈한 동료애는 작년 여름 비상대기 숙소의 주차 공간을 손수 추가 확보한 일화에서도 여실히 느낄 수 있다. 비상대기 숙소를 활용하는 직원들이 복지과에 주차 공간 부족을 호소하자,

“교정공무원과 수용자의 일상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강릉교도소를 위해 땀 흘리는 복지과 직원들을 응원해 주세요!”

복지과 직원들은 곧바로 현황 파악에 돌입했다. 그 결과 주차면을 2~3면 정도 신속하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으며, 시설팀에서 직접 공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한여름이어서 엄청 뜨거웠거든요. 땀을 뺏고 흘리면서 삽질과 꼭 괭이질을 하고 있는데, 급한 일을 마친 복지과 직원들이 한두 명씩 나오더니 일손을 거들어 줬습니다. 그 모습만으로도 어찌나 힘이 나던지요. 점심시간에 야외 정자에서 널찍이 펼어져 앉아 중화요리를 먹으며 한껏 웃었던 기억이 어제 일 같습니다. 덕분에 공사를 한나절 만에 빠르게 끝마쳤고요. 그곳에 차를 댄 직원들이 고맙다며 음료수를 가져다주셔서 더욱 기뻤죠.”

코로나19 상황이 완화되면서 한숨을 돌렸지만, 여전히 복지과는 바쁘게 돌아가고 있다. 최근 수용자 취사원 중 일부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원활한 급식을 위해 비상 급양 매뉴얼을 만들어 활용하고 있다. 수용자 취사원 확진자 수에 따라 직접 조리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조정한 덕분에 남은 수용자 취사원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무리 없이 음식을 만들었고, 급양도 원활하게 진행했다. 올 연말까지 이어질 예정인 1수용동 증축 공사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특히 최근 코로나19와 국제 정세에 따른 원자재 및 물류 비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개청 50년이 지난 만큼 시설 노후화로 인한 공사가 줄줄이 잡혀 있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안전이 가장 중요하기에, 현장 근무자 대상 안전제안함을 설치하는 등 안전한 공사를 추구하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복지과의 여러 업무에도 두루 신경 써서 교정공무원과 수용자의 일상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강릉교도소를 위해 땀 흘리는 복지과 직원들을 응원해 주세요!”



MINI INTERVIEW

저는 복 받은
과장입니다!

“시설 노후화에 코로나19까지 겹쳐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도 자신의 뜻을 해내는 것을 넘어 동료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몇 걸음씩 더 뛰는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계속 함께 일하고 싶은 동료를 만나는 게 조직 생활의 가장 큰 복이라 생각하는데요. 지금까지도 많은 복을 받아 왔지만, 복지과는 그야말로 복이 넘치는 종합 ‘행복’ 세트! 저와 함께하고 있는 우리 복스러운 직원들, 정말 고맙습니다!”

복지과장 안효정

홍영선

교도

박
인
숙교
위

경험할수록 가까워지는 성공의 길

강릉교도소 교위 박인숙 & 교도 홍영선



교정공무원에게 성공이란 무엇일까.
다양한 답이 있겠지만, 수용자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일이 교정공무원으로서
성공의 밑바탕이라는 생각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더 많은 수용자를 교정교화할 수 있을까.
고민에 빠진 2년 차 교정공무원 홍영선 교도는
평소 잘 따르는 박인숙 교위를 찾았다.

글 강진우 사진 이정도

친자매처럼 살갑고 따뜻한 선후배

홍영선 교도 — 안녕하세요, 교위님! 1월까지만 해도 매일같이 뺐는데, 지금은 팀이 바뀌어서 자주 뵙지 못해 아쉬워요. 건강하게 잘 지내시죠?

박인숙 교위 — 그하게 말이에요. 작년 4월부터 올 1월까지 9개월 동안 내내 붙어서 근무해서인지, 나도 홍 교도가 많이 생각나요. 홍 교도가 걱정해 준 덕분에 별일 없이 열심히 일하고 있답니다. 얼른 독서 동아리 오프라인 모임이 다시 시작돼야 더 자주 볼 텐데 말이에요. 다행히 상황이 나아지고 있으니 조만간 모두 한자리에 모여 그간의 이야기와 독서 소감을 나눌 수 있겠죠?

홍영선 교도 — 교위님과 함께 일할 수 있었던 건 저에게 큰 행운이었어요. 재작년 6월부터 고향인 대구를 떠나 홀로 강릉으로 와서 근무하다 보니 외롭기도 했고 이곳의 분위기를 잘 몰라서 당황스러운 적도 있었는데, 강릉 토박이이신 교위님이 좋은 집 구하는 방법부터 질 좋은 고기를 싸게 살 수 있는 곳까지 살뜰하게 알려 주셔서 한결 빨리 적응했어요. 책을 열심히 읽으시는 모습을 보고는 독서 동아리 활동도 시작했고요. 그뿐인가요? 시간이 될 때마다 강릉의 이곳저곳을 함께 다니며 좋은 추억을 쌓을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기도 했죠. 교위님을 생각하면 정말 감사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박인숙 교위 — 홍 교도만 도움을 받은 게 아니에요. 나도 알게 모르게 홍 교도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민원실에서 다시 보안과로 왔을 때 여자 수용동 현황을 세세하게 파악할 수 있게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줬고, 오랜 대화를 통해 요즘 후배들의 솔직한 생각을 알 수 있게 도와줬잖아요. 이제 막 첫발을 뗀 후배 입장에서 27년 차 선배에게 다가서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종종 친동생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스스럼없이 함께 시간을 보내 줘서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우리 앞으로도 지금처럼 행복하게 지내봐요!(웃음)



저도 교위님처럼
힘든 일을 피하는 대신
담당하게 받아들이고
상황에 맞춰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결심이 서네요.



교정공무원은 여러 부류의
수용자를 상대해야 하는
업무 특성상 특히 더 경험이
중요해요.
하나둘 알아가다 보면
어느새 베테랑 선배가
돼 있을 거예요.

experience

신입을 베테랑으로 변화시키는 시간과 경험

박인숙 교위 — 이렇게 시간을 따로 내서 날 찾아온 걸 보니, 흥 교도가 요즘 고민이 있나 보네요. 흥 교도만 괜찮다면 어떤 고민인지 들려줄 수 있어요? 앞서 이 길을 걸은 선배로서 힘이 돼 주고 싶어요.

홍영선 교도 — 역시 교위님은 저를 잘 아시네요. 누구든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싶잖아요? 저도 교정공무원으로서 가장 중요한 임무인 수용자 교정교화에 능숙해지고 싶은데, 생각만큼 쉽지 않아요. 제가 강릉교도소에 온 지 두 달쯤 지났을 때였는데요. 당시 한 수용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넣은 일이 있었어요. 제가 그 수용자에게 욕을 했다고 하는데, 저는 전혀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억울했지만 성실하게 전화 조사를 받았고, 잘못한 건 없지만 결과가 나올 때까지 몇 날 며칠 잠을 설쳤어요. 제가 하지 않은 행동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게 믿기지 않았고, 약간의 충격도 받았는데요. 수용자들의 이런 돌발행동이 때때로 저를 힘들게 해요.

박인숙 교위 — 나도 그때 흥 교도가 겪은 일이 기억나네요. 당연히 거짓 진정서였다는 사실이 밝혀졌지만, 흥 교도 입장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선배들도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속상하고 가슴이 떨리는데, 당시 3개월 차 교정공무원이었으니 더 힘들었겠죠. 교정공무원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과 부딪히기 마련인데, 나는 그때마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을 떠올려요. 다른 일도 마찬가지겠지만, 교정공무원은 여러 부류의 수용자를 상

대해야 하는 업무 특성상 특히 더 경험이 중요해요. 교정기관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저런 일에 익숙해지고 경험적으로 대응 요령을 하나둘 알아 가다 보면 어느새 베테랑 선배가 돼 있을 거예요. 힘들 때 일수록 주눅 들지 말고 ‘이게 다 나에게 약이 되는 경험이다’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좋겠어요. 흥 교도는 이미 좋은 교정공무원이 될 충분한 자질과 자격을 갖추고 있으니까요.

위기를 넘어서는 최고의 원동력, 몰입

홍영선 교도 — 교위님 말씀을 듣고 나니 마음속 구름이 확 걷히는 것 같아요! 3년 차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저에게 정말 필요했던 조언이네요. 앞으로 모든 일을 나의 성장을 위한 경험이라고 생각하면 한결 마음이 편안할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교위님도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며 여기까지 오셨을 텐데, 그때마다 어떻게 자신을 추스르셨나요?

박인숙 교위 — 오히려 내가 맡은 일을 잘 해내려고 더 열심히 그 일에 몰입했던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하니 얼마 전 겪은 일이 생각



나네요. 민원실에서 근무할 때 코로나19 사태가 터졌는데요. 누구도 겪어 보지 못한 초유의 일이었기에 민원과 접견 관련 대응 매뉴얼이 거의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서울에서 강릉까지 찾아온 한 접견인은 갑작스러운 감염병 확산 때문에 그대로 다시 돌아가야 했는데,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를 설명하기가 쉽지 않더군요. 초기에는 코로나19 대응 체계와 요령이 제각각이었으니까요.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를 만큼 바쁘고 힘들었는데, 그럴수록 관련 공문과 뉴스를 더욱 꼼꼼히 찾아보고 민원인과 접견인에게 상황을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부단히 노력했어요. 대응 과정도 점점 더 부드러워졌죠. 그 때 우리가 하는 일은 경험과 노력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느꼈어요.

홍영선 교도 — 저도 교위님처럼 힘든 일을 피하는 대신 담당하게 받아들이고 상황에 맞춰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결심이 서네요. 특히 아직 다양한 경험을 하지 못한 저는 더욱 노력해야겠어요. 취업 준비생 시절에 교정직을 공부하면서 사회복지직도 함께 준비했는데요. 그때 했던 사회복지 관련 지식을 수용자 교정교화에 활용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도 문득 드네요. 당분간 퇴근하고 나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어요.

박인숙 교위 — 그런 마음가짐이라면 앞으로의 교정공무원 생활에서 넘어서지 못할 일은 없을 거예요. 27년 차 선배의 말을 믿고 지금처럼 열심히 해 보세요. 교정공무원으로서의 성공이 눈앞에 다가와 있을 거예요. 항상 응원할게요!

홍영선 교도 — 저도 열심히 노력해서 교위님께 받은 가르침과 사랑을 미래의 후배들에게 듬뿍 전하는 선배가 될게요! 사랑합니다, 교위님!

수용자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봉사 팔방미인'

**강릉교도소 교정협의회장 구본례
(에너지나라 대표)**

글 강진우 사진 이정도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을 이끄는 동시에 보디빌딩, 철인 3종 경기를 즐긴다. 이런 와중에도 틈틈이 지역사회와 강릉교도소 수용자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꾸준히 펼친다. 한 발 더 나아가 올 1월부터는 강릉교도소 교정협의회장까지 맡았다. 사람들이 구본례 교정협의회장을 '봉사 팔방미인'이라 일컫는 배경이다.

강릉교도소와 연을 맺은 봉사 여왕

기계설비 관련 전문성을 꾸준히 키운 끝에 강원도에서 앞서 나가는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을 일군 구본례 강릉교도소 교정협의회장. 그는 에너지 사용기기 및 주거용 냉·난방설비 설치·시공 분야의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법정단체인 한국열관리시공협회를 통해 봉사의 첫 발을 뗐다. 이 단체에서는 폭우, 폭설, 태풍 등 각종 재난으로 피해를 본 이들을 찾아가 하우스 철거, 보일러 교체 시공, 집수리와 같은 봉사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는데, 구본례 교정협의회장 또한 적극적으로 일손을 거들었다. 2016년 '전국 최초의 여성지회장'이라는 타이틀과 함께 한국열관리시공협회 강릉지회장에 오른 뒤로는 봉사의 빈도가 더욱 높아졌다.

"봉사활동을 하다 보니 어느새 습관이 됐어요. 안 하면 허전한 지경에 이르렀고, 여러 단체를 다니며 지역 사회를 위해 노력했어요. 그러다가 강릉교도소와도 인연을 맺었죠. 역대 교정협의회장님들도 여러 봉사단체에서 활동하셨는데, 수용자를 교정교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해서 '일반인들의 손길이 상대적으로 뜸한 곳에서 봉사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좋은 뜻을 품고 2010년 강릉교도소 교정위원으로서 활동을 시작했지만, 교정기관에 와 보거나 수용자들과 마주한 적이 없었던 만큼 상당한 부담감이 있었다. 하지만 만남이 거듭될수록 낯섦이 사라졌고, 수용자들에게 여러 방면의 교정교화가 꼭 필요함을 느꼈다.

"멘토링과 자매결연으로 수용자들을 만나면서 이들도 우리 사회의 일원이라는 걸 수없이 느꼈어요. 예전에는 수용자들이 지은 죄를 중심으로 그들을 바라봤다면, 지금은 수용자들이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엄정한 법 집행은 교정기관에서 수행하니, 우리 교정협의회에서는 수용자들이 출소 후 착하고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지원하는 데 힘을 기울이면 된다고 봐요. 그래야 우리 사회가 한결 안전해지고, 출소자들도 마음잡고 살아갈 수 있죠. 지난 12년 동안 이런 생각으로 열심히 교정위원 활동을 해 왔습니다."

교정교화의 구심점 역할을 자처하다

구본례 교정협의회장은 강릉교도소 앞 다락습지공원에서 매년 열리는 강릉교도소 국화 전시회에서 수용자들과 시민들이 상생, 화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했다. 수용자들이 죄를 뉘우치며 재배하고 만든 국화 작품이 시민들을 웃게 만드는 모습을 보며 교정교화에 대한 필요성과 교정위원으로서의 책임감을 무겁게 느꼈다



고. 이러한 시간은 모이고 모여 그를 교정협의회장으로 이끌었다. 올 1월 취임한 구본례 교정협의회장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이·취임식을 생략했다. 대신 이·취임식에 들어가는 비용을 수용자 특식과 마스크 구매에 사용, 신임 교정협의회장으로서의 한층 의미 있는 첫걸음을 내디뎠다.

"지금까지는 교화분과 위원으로 활동했지만, 이제 교정협의회장의 자리에 오른 만큼 강릉교도소 교정협의회 모든 분과의 활동이 원활하게, 유기적으로 이뤄지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그러자면 교정위원들의 단합력을 키워야 하는데요. 100여 명의 교정위원이 서로의 역량을 잘 연계해서 수용자들의 교정교화에 더욱 도움이 되는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화합의 자리를 지속해서 마련할 계획입니다. 마침 코로나19 상황이 좋아지고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웃음)"

구본례 교정협의회장은 수용자 교정교화 활동과 함께 출소자들에게 희망찬 내일을 선물하기 위해 사회의 선입견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심하고 있다. 그가 얼마나 진심으로 교정협의회장 활동에 임하고 있는지를 느낄 수 있는 지점이다. 앞으로의 활동 계획과 목표에 관해 묻자, 그가 활짝 미소 지으며 이런 답을 건넸다.

"저는 제 자손들에게 무작정 금전적인 재산을 물려주고 싶지는 않아요. 오히려 지금처럼 다방면으로 봉사활동을 하면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봉사 유전자를 물려주는 게 더 중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교정협의회장 임기가 끝난 뒤에도 끝까지 교정위원으로서 활발하게 활동할 겁니다. 제가 수용자 교정교화와 출소자 사회 정착의 작은 구심점 역할이라도 할 수 있다면 더 바랄 게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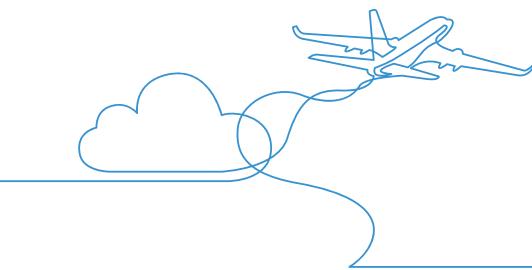
Re:member

추미의 꿈

일일 파일럿 체험에도 전 일상의 고도를 높이다!

홍성교도소 서산지소 한벗 교사

글 김주희 사진 홍승진



하늘에 대한 로망을 실현하다

어느 주말 오후, 한벗 교사가 당도한 곳은 홍대입구역 부근에 자리한 항공기 조종 체험장 '비행맛'이다. 제주항공이 항공기 비행 시뮬레이터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간으로 실제 항공기 조종석과 같은 환경이 갖춰져 있다. 평소 하늘을 나는 활동에 흥미를 느낀 한벗 교사가 일일 파일럿이 되기로 했다.

"유년 시절 그리스 신화를 읽었는데, 이카루스의 꿈이 인상 깊었어요. 하늘을 날고 싶은 꿈을 안고 태양 가까이 날아갔잖아요. 어린 마음에 막연히 하늘에 대한 동경이 생긴 것 같아요. 또 높은 곳을 날고 싶다는 건 인간의 본능이기도 하고요. 제주도에서 패러글라이딩에 도전했는데, 레포츠와는 다른 매력의 항공기 조종이 궁금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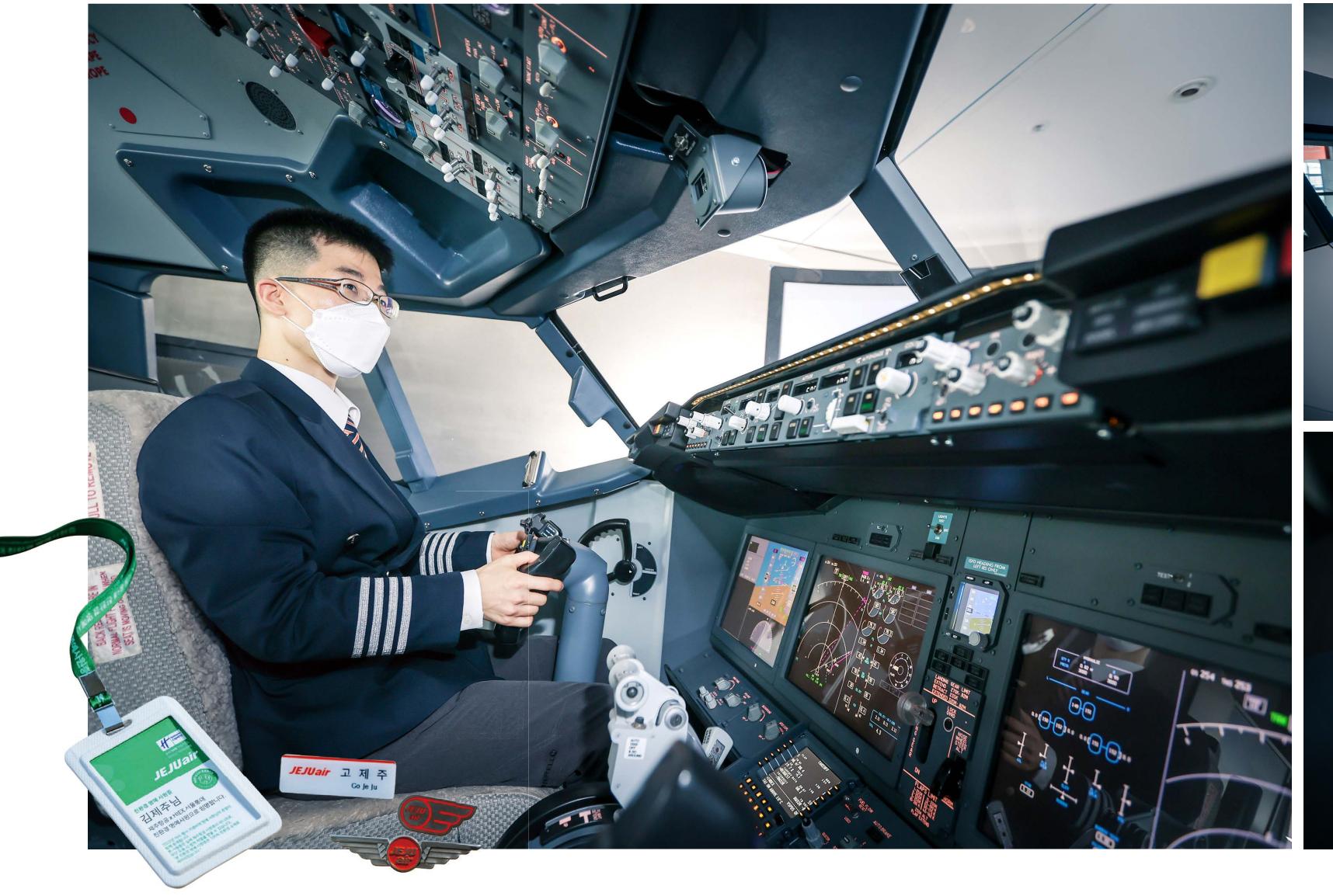
본격적인 시뮬레이터 체험에 앞서 전문 교관으로부터 브리핑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교관은 출발지와 목적지, 기상 상태 등을 직접 설정해줄 권했고, 한벗 교사는 고민 끝에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해 하와이 호놀룰루국제공항으로 착륙하는 비행 코스로 선택했다. 날씨는 맑음이다.

"최근 팬데믹으로 해외여행 가기가 어려웠잖아요. 평소 하와이에 가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체험으로나마 가게 되네요."

체험 관련 사항과 주의할 점을 안내받은 후에는 정식 훈련 복장으로 갈아입었다. 한쪽에 실제 파일럿과 승무원이 입는 옷이 걸려 있는데, 한벗 교사는 소매에 네 줄 장식이 들어간 가장 유니폼을 선택했다. 복장까지 갖추고 나니 더욱 실감 난다.

"기분이 좋네요. 실제로 파일럿이 되기까지 오랜 시간 훈련을 거치잖아요. 이렇게 최단 시간에 조종사복을 입는 경험을 하네요 (웃음)."

시뮬레이터 안으로 들어서자 기장석과 부기장석이 마련돼 있다. 주변은 각종 계기판이 둘러싸여 있고, 정면에는 드넓은 스크린이 있다. 시뮬레이터는 보잉 737 MAX8 기종으로 실제 항공기와 동일한 환경으로 구현된 것이 특징. 신입 파일럿 교육에 사용됐던 기기라는 설명에 진짜 항공기를 탄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왼쪽 기장석에 앉은 한벗 교사. 이 순간만큼 항공기 운항을 직접 통솔하는 파일럿이 된다.



리얼리티 운항으로 몰입도 Up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동차 운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종간은 핸들을 역할을 하는데 방향을 설정할 때 사용합니다. 레버는 동력을 발생시키는 액셀러레이터 역할을 하죠. 자 그럼,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합니다. 이륙을 위해 활주로로 이동할까요.” 한벗 교사는 교관의 안내에 따라 이륙을 위해 보조 날개를 조정한다. 어느새 엔진 등에 불이 들어오고, 핸들을 돌려 활주로 쪽으로 이동한다. 모든 준비가 끝나고 레버를 당기자 항공기가 하늘을 향해 날기 시작한다. 비행기에 탑승했을 때 들리는 특유의 소음 또한 현실감을 더한다. 아무리 체험이라지만 안전하게 조종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든다.

이륙을 마치자 하늘에서 바라보는 지상의 모습이 스크린 위로 펼

쳐진다. 화창한 날씨의 맑은 풍경이 평화로운 느낌마저 자아낸다. 그것도 잠시, 순항 고도에 들어설 때까지는 신경 쓸 것들이 많다. 화면에 보이는 속도계와 고도계는 생각보다 복잡하다. 모니터에는 안전한 비행을 위한 중앙점이 띄워지는데, 과녁을 맞히듯 핸들을 미세하게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다.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는 항로 안내 화면을 확인하는 것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 한시도 방심 할 수 없는 순간, 한벗 교사의 집중력이 발휘된다.

“파일럿이 아니고서는 하늘에서 거대한 항공기를 조정해 보는 일은 할 수 없잖아요. 천문학적인 무게의 비행기가 양력에 의해 뜬다는 과학적 원리는 알고 있지만, 이렇게 간접적으로 경험하니 그저 신기하네요. 시뮬레이터나 스크린 화면이 실제 같아서 절로 몰입하게 됩니다.”



도전은 인생의 새로운 동력

일정 시간 안정적인 비행을 이어가다 어느새 스크린 속 항공기는 도착지인 하와이에 다다랐다. 저 멀리 호놀룰루국제공항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한다. 항공기가 땅에 닿기 전 미리 착륙 준비도 해야 한다. 지상용 바퀴를 꺼내는 것부터 활주로를 찾는 것까지 챙길 부분이 많다. 물 위에서 지상 위로 들어서기까지 잠깐의 위기도 있었지만, 다시 집중력을 발휘하며 공항에 착륙했다.

“하늘에 떠 있다가 활주로에 끌려앉는 과정이 쉽지 않네요. 긴장 되기도 했는데, 무사히 착륙해서 안도감이 듭니다.”

다시 한번 착륙 체험의 기회가 한벗 교사에게 주어졌다. 이번에는 방금 전에 교육 내용을 차츰차츰 더듬어 단번에 성공한다. 평소 업무와는 다른 체험을 해본 소감은 어떨까.

“교정공무원의 업무와 완전히 다른 일 같지만 깊은 점도 있더라고요. ‘사람’과 ‘기계’, 그 주체가 다를 뿐 대상과 친해지고 익숙해져야 업무가 수월해지는 것처럼요. 익숙해질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노력은 언젠가 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벗 교사는 항공기 조종 체험을 동료들에게 추천하고 싶다고 전했다. 반복적인 생활 패턴에서 벗어나 새로운 체험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일상을 환기할 수 있다고.

시뮬레이터 안에서 즉석 사진을 찍고 명예 사원증까지 받자 모든 체험이 마무리됐다. 명예 사원증을 뿐만 아니라 바라보는 한벗 교사. 그에게 이번 체험은 도전의 의미를 곱씹어 본 유의미한 시간으로 남았다.

“거창한 목표가 아니더라도 작은 도전과 시도는 일상을 한층 풍요롭게 만드는 것 같아요. 오늘의 도전이 단조로운 일상에 새로운 힘을 더해 줬습니다. 더욱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경비행기 조종에도 도전하고 싶어요. 또 몸에 활력을 더하고자 춤도 배워볼 생각입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항공기 조종 체험이 인생의 새로운 동력이 됐습니다!”

거창한 목표가
아니더라도
작은 도전과 시도는
일상을 한층 풍요롭게
만드는 것 같아요.



<취미의 공유> 코너 참여신청하기!

<취미의 공유>는 교정공무원의 참여로 만들어집니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교정공무원 동호회를 소개하거나, 평소 하고 싶었던 취미 활동, 공유하고 싶은 본인의 취미 활동을 홍보해 일상에 새로운 활기를 되찾아 보세요!

참여신청방법

correct2015@naver.com으로 신청
(소속 기관, 이름, 직급, 연락처 필수 기재)





바리스타 세계로 성큼 감미로운 커피의 매력 속으로

서울구치소 교도 차경회 &
카페바리스타아카데미학원 원장 이소림



커피를 폭넓게 경험하다

커피는 단순한 기호 식품을 넘어 우리네 일상에 속 깊이 파고든 음료로 자리매김했다. 자신의 취향에 맞는 커피를 마시고자 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더욱 섬세하고 정교한 풍미의 커피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원두의 차이는 물론이거니와 로스팅 정도, 분쇄도, 물의 온도에 따라 커피의 맛은 천차만별이다. 차경회 교도에게도 커피는 일상 속 늘 자리하는 존재다.

“고정공무원이 되기 전, 수험생활을 하는 동안 커피를 많이 마셨습니다. 점차 커피에 관한 관심이 많아져서 카페도 많이 찾아다니곤 하는데요. 전문가를 통해 커피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또한 서울구치소에서는 소년수용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희망커피’를 운영하고 있어요. 언젠가 바리스타가 되면 소년수용자에게 커피를 가르칠 기회가 달길 바랍니다.”



커피는 달콤쌉싸름한 음료이자 나른한 몸을 깨우는 묘약이다. 또한 누구나 쉽게 즐기지만 제대로 알고 마시는 이는 드물다.
서울구치소 차경회 교도가 평소 관심이 많았던 커피에 한 걸음 가까이 다가갔다.
전문가와 함께 바리스타의 세계를 차츰차츰 알아보는 시간을 누렸다.

글 김주희 사진 이정도

서울 강남에 있는 카페바리스타아카데미학원 이소림 원장은 2008년부터 바리스타로 활동한 베테랑이다. 아카데미를 운영하며 바리스타 자격증 커리큘럼과 커피 클래스는 물론 실제 카페를 운영하며 얻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카페 창업 컨설팅도 한다.

“바리스타란, 단순히 커피를 만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변화된 고객의 취향과 입맛을 섬세하게 파악하고 이에 맞춘 커피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죠. 좀 더 폭넓게 보자면, 원두 로스팅, 커피콩 무역 업무도 도맡습니다.”

차경회 교도는 이소림 원장에게 질문을 하며 바리스타의 세계에 가까이 다가갔다. 또한 바리스타의 시연에 따라 사이폰 추출법과 라테아트에 직접 도전하는 경험도 할 수 있었다.



이것이 궁금하다!

Q&A



**Q 커피는 대중에게 사랑받는 식품입니다.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커피의 매력은 무엇인가요?**

A 저는 커피를 취미로 즐기다가 그 매력에 빠져 바리스타가 된 유형입니다. 커피는 패션과 비슷하다고 할까요. 새로운 트렌드가 생기고 유행이 돌고 돌면서 다채로운 매력을 뿐내는 패션과 닮은 점이 많아요. 커피 또한 시즌마다 선호하는 원두가 다르고, 시럽이나 소스, 크림 등 무궁무진한 변화로 끊임없이 새로운 것이 생겨나죠. 또 과거 유행했던 커피 메뉴가 재해석되면서 사랑받기도 하고요.

**Q 바리스타 자격증 취득을 위해 준비해야 할
사항이 궁금합니다.**

A 커피 바리스타 자격증은 공인 자격증이 아니라 민간 자격증입니다. 다양한 협회와 기관이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는데요. 협회마다 교육 과정과 자격증 시험이 조금씩 다르니 바리스타 학원을 선택할 때는 어느 협회의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Q 바리스타 1급과 2급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2급은 초급 자격증인데, 에스프레소 추출과 카푸치노 제조에 관한 항목을 평가합니다. 1급의 경우 커피의 향미를 알맞게 설명할 수 있는지를 살피고, 라테아트 실기를 평가합니다. 하지만 자격증 취득보다 배우는 과정에 충실히 임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커피머신이나 도구들을 손에 익히고 커피를 섬세하게 공부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Q 요즘에는 직접 카페를 창업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새로 생겨 나는 만큼 사라지기도 하는데요.
카페 창업 시 유의해야 할 점을 알려주세요.**

A 카페 창업은 비교적 진입 장벽이 낮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무턱대고 창업하기보다 자신과 잘 맞는지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다양한 고객과 마주하는 만큼 새로운 사람에게 친밀하게 다가갈 수 있는지, 대면 서비스를 하는 것이 불편하지 않은지 확인해 보세요. 그다음 예산을 고려하고요. 카페는 소자본 창업이 많은데, 예산 그리고 카페의 성격에 맞는 상권을 선택해야 합니다. 창업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기기들을 중고로 구입하거나 일부 인테리어를 스스로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때를 위해 평소 양질의 중고 제품을 고를 수 있는 안목을 기르는 게 중요합니다.

**Q 요즘은 직접 집에서 커피를 만들기도하는데요,
이때 알아두면 좋은 팁이 있을까요?**

A 신선한 원두를 구매하면 맛 좋은 커피를 마실 수 있어요. 로스팅한 지 오래된 원두는 구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볶아진 원두는 서서히 향미가 사라지니까요. 원두가 최상의 맛을 내는 ‘상미 기간’은 보통 로스팅 후 10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안에 소비하는 게 좋습니다. 원두를 구매할 때 100g, 200g씩 적은 양을 구매하고, 마실 때마다 소량 분쇄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한 자신의 취향에 맞춰 물의 비율과 온도 등을 찾는다면 더욱 커피를 맛있게 즐길 수 있을 거예요.



<전문가에게 묻다> 코너 참여 신청하기!

<전문가에게 묻다>는 교정공무원의 참여로 만들어지며, 평소 고민이나 궁금했던 사항을 전문가에게 물어보는 코너입니다. 은퇴 설계, 재테크, 자녀 교육, 취미 등 모든 분야에서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고 고민과 궁금증을 해결해 보세요!

참여 신청 방법 correct2015@naver.com
으로 신청(소속 기관, 이름, 직급, 연락처 필수
기재)





Re:member
나도 패션왕

나도 패션왕

나도 패션왕



플라워 원피스 & 맥코트

아내는 자연스러운 연두색 계열의 꽃무늬 시폰 원피스에 메리제인 슈즈 파니마 햇을 걸쳤고, 남편은 깔끔한 맥코트에 연두색 니트를 이너로 입었다. 밝은색 청바지가 시원한 느낌을 더한다.



글 이원복 사진 홍승진 스타일링 박승이 헤어&메이크업 김연주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을 함께하다

5월은 꽃과 신록이 아름답고 즐길거리가 가득해 계절의 여왕이라 불린다.

한해 중 가장 아름답다는 시기, 부부의 날(5월 21일)을 앞두고

홍성교도소 이성덕 교위·김부경 교위가 스타일링 변신과 리마인드 웨딩으로 특별한 하루를 보냈다.



Love Story in 홍성

올해로 결혼 15년 차를 맞이한 이성덕 교위·김부경 교위 부부는 서로를 '세상에서 가장 친한 친구'라는 말로 정의한다.

"저희 둘이 가장 친해요. 같은 교정시설에서 근무하고 퇴근 후 집에서도 모든 것을 함께하죠. 매일 저녁 한 시간씩 산책하면서 이것저것 다양한 주제로 대화도 많이 합니다. 목이 아플 정도로 이야기해도 또 다른 이야기거리가 생기더라고요. 오늘은 '나도 패션왕' 덕분에 서울로 올라오면서 연애 시절 이야기도 많이 했어요. 다시 그때로 돌아간 기분입니다."

홍성교도소에서 함께 근무하는 부부. 맡은 업무와 근무 공간이 달라 종종 함께 있지는 않지만, 같은 일을 한다는 것만으로도 서로에게 가장 큰 힘이 된다.

"장단점이 있지만, 저희에게는 장점이 더 많아요. 가끔 교정공무원으로서 고충이 있잖아요. 그걸 가장 잘 이해해 주는 사람은 교정공무원이고요. 그래서 교정공무원 부부가 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누구보다 서로를 잘 위로해 줄 수 있으니까요."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것은 2006년이다. 당시 다른 곳에 있던 이성덕 교위가 홍성교도소로 근무지를옮기면서 김부경 교위를 만났고, 첫눈에 반하면서 두 사람의 인연이 시작됐다.

"아내가 선배예요. 처음에는 대하기가 좀 어려웠지만, 그래도 마음에 드니 따라다녔죠. 아는 것도 괜히 물어보고, 일부러 공부 모임도 만들어서 같이 도서관에도 갔죠."

반면 김부경 교위는 자신에게 다가오는 이성덕 교위의 마음을 알아차리기까지 조금 시간이 걸렸다고.

Change
your
Style

- 외모를 가꾸는 데 관심이 없어 축복받은 유전자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교정인.
- 삶의 터닝포인트를 위해, 자신감을 되찾기 위해, 기분 전환을 위해 변화가 필요한 교정인.
- 멋지게 변신시켜 드리고, 월간 <교정>에 소개해 드립니다.
- correct2015@naver.com 메일로 신청해 주세요!



“

덕분에 연애 시절
이야기도 많이 했어요.
그때로 돌아간 기분입니다.



만큼 그 아쉬움을 좀 달래 보고자 합니다.”

결혼 후 두 사람은 서로 부족한 점을 보완하며 모든 것을 함께한다. 산책이나 옷을 사는 일부터 미래를 준비하는 것까지 혼자 결정하는 일이 없다. 대부분 이성덕 교위가 먼저 목표를 세우거나 동기를 부여하면 김부경 교위가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적인 계획을 짜는 식이다. 이성덕 교위는 그런 점에서 아내를 평생 함께할 친구이며, 가장 존경하는 사람으로 꼽는다.

“예전에는 제가 꽤 예민한 성격이었어요. 반면에 아내는 생각보다 털털한 부분이 많았죠. 그런데 지금은 서로 좀 바뀌었어요. 오래 살다 보니 깊게 된 부분이 있나 봐요. 부족한 것들을 아내가 많이 채워줍니다. 그래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을 묻는다면 단연 ‘아내’입니다.”

김부경 교위 역시 서로 다른 점이 있어 배우며 살아가기에 더 행복하다고 말한다.

“남편은 삶의 목표나 계획을 잘 세우는 ‘미래 지향형’이에요. 자기 주관도 상당히 뚜렷하고요. 반면 저는 ‘현실 만족형’이죠. 어찌 보면 성향이 달라 맞지 않을 것 같지만 오히려 반대에요. 부족한 점을 채워준다는 게 매력적으로 느껴지니까요.”

늘 서로 함께하는 순간이 가장 행복하다고 말하는 두 사람. 서로에게 더 바라는 것 없이 그저 곁에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큰 행복이라고 말한다.

“지금이 저희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에요. 결혼 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더 바랄 것이 없지만, ‘건강’ 하나만은 꼭 지켜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딸을 포함한 가족이 지금처럼 늘 행복하길 바랍니다.”

“처음에는 그냥 호의를 베푸는 줄 알았어요. 남편이 잘생겨서 당시에 인기도 많았죠. 그래서 ‘저런 사람이 굳이 나를 좋아할까?’라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계속 두드리니 제 마음이 움직이더라고요.”

부부여서 더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

부부가 선택한 오늘의 의상은 리마인드 웨딩룩 그리고 아름다운 유럽 풍경과 잘 어울리는 여행룩이다. 리마인드 웨딩룩은 서로를 먼저 생각하고 평생 함께하자고 했던 약속을, 여행룩은 함께 다녀온 독일 유학 시절의 추억을 되새겨 보자는 의미를 담았다.

“연애를 시작할 때 1년에 한 번씩 똑같은 자리에 가서 사진을 찍어 우리의 모습을 남겨보기로 했어요. 근데 시간 맞추기도 어렵고 자녀도 생기다 보니까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오늘 멋지게 차려입은

그것이
궁금
하다

두 분이 함께 계획하고
있는 미래는
무엇인가요?

“언젠가는 둘이서 국내 여행을 하고 싶어요. 차에 자전거를 싣고 전국을 돌아다니는 거죠. 경제적인 것보다는 정신적인 것에 더 의미를 두고 삶을 고민해 보는 시간을 보내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홀터 시폰 드레스 & 슈트
순백의 비즈 홀터 쉬폰 드레스에 라벤더 재킷 그리고 하늘색 계열의 슈트, 보타이로 부담스럽지 않은 리마인드 웨딩룩을 완성했다. 5월 산뜻한 분위기에 잘 어울린다.

참회의 기도로 지난날의 잘못을 돌아봅니다

글 박○○

• **화려하고 멋진 삶이 아니었을지라도** 성실하게 한 걸음씩 나아가던 저의 삶은 단 한 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지옥과도 같은 시간이 됐습니다. 회사 퇴직금과 대출금으로 시작한 가게는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이 악화해 유지하기가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직원들 급여는 밀리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버티고 버텨 봤지만, 결국 제게 돌아온 것은 폐업과 감당할 수 없는 대출금, 개인회생이라는 암울한 현실이었습니다.

• **하루하루 삶과 죽음의 경계에** 위태롭게 서 있던 제가 어려움을 박차고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힘이 돼 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저를 믿고 도와준 이들의 믿음을 져버리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최소한의 휴식만 취하며 음식 배달, 음식점 서빙, 새벽 택배 등 닥치는 대로 아르바이트를 해 돈을 벌었고, 그렇게 1년을 보내니 다행히도 많은 빚을 상환했습니다. 조금만 더 노력하면 끝날 거라는 생각에 무리인 줄 알면서도 일을 더 늘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 **그러던 중 짧은 시간 대비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고액 아르바이트 광고를 접했습니다. 누군가에게 현금을 받아 다른 이에게 전달해 주는 일이었습니다. 조금만 신중했다면 충분히 보이스피싱에 관련된 일임을 파악할 수 있었겠지만, 힘든 상황을 조금이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은 욕심에 눈과 귀가 멀어 잘못된 판단과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당연하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에게 체포됐고 구치소로 왔습니다. 처음에는 가족을 포함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지지만 않았으면 하는 근심과 걱정이 많았습니다. 게다가 근거 없는 억울함, 곧 나갈 수 있을 거라는 헛된 희망, 누군지도 모르는 대상을 향한 원망, 사회에 대한 분노 등이 순차적으로 제 감정을 지배했습니다.

• **한 달, 두 달 구속 기간이** 길어지자 많은 것을 체념하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차분히 시간을 보냈습니다. 과거의 행동을 되짚어 볼 여유가 생긴 후에야 제가 놓치고 있었던, 아니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나로 인해 피해를 본 분과 그 가족들.' 잘못된 판단과 그릇된 선택으로 비롯된 그분들의 고통을 간과한 채 제 손끝에 박힌 작은 가시만 보고 칭얼대고 있었음을 깨닫고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너무나 죄송하고 참담한 심정으로 가슴속 깊이 파고드는 부끄러움을 느끼며 매일 저녁 잠들기 전 피해자분들과 그 가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춥고 암울한 겨울 한가운데, 땅 밑에는 봄에 싹을 트우기 위해서 조용히 그러나 치열하게 발버둥 치는 씨앗이 있듯이 어려움 속에서도 씨앗은 계속 자라고 있음을 잊지 않고, 지금의 힘겨운 현실과 고통스러운 시기가 지난 후 그분들이 찬란한 인생을 맞이하기를….

더 멀리 가기 위해 꿈틀거리는 애벌레의 몸짓이 그저 고통스러운 순간으로만 여겨지지 않고, 불필요한 껍질을 모두 벗어버리며 진정한 변신을 위해 집중하는 일이 되기를….

거칠고 가파른 자갈길을 걷다 보면 어느 순간 잘 다져진 행복의 길에 다다를 것이라는 믿음으로 그분들의 고통의 시간이 조금이라도 줄어들기를….

세상 모든 것에는 끝이 있듯 그분들께서도 고통스러운 순간의 마지막 장을 넘기며 희망찬 인생의 새 페이지를 맞이하길….

그분들께서 힘듦과 고달픔을 잘 견뎌내 모든 일이 잘 해결되고, 시간이 치유의 손길을 내밀어 주기를….

삶의 가장 밑바닥에서 밧줄의 끝자락을 잡고 매달려 있을 그분들이 모든 것을 견디고 극복할 힘을 주기를, 그럼으로써 나도 언젠가는 용서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꿈꾸길….

• **물론 이런 반성과 기도만으로** 용서받겠다고 생각하시는 않습니다. 피해자분들의 고통 속에 담긴 절망과 분노를 살일 어여쁜 방법도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진심으로 후회하고 뉘우칩니다' 등의 말 한마디, 글 한 줄로 무마할 수 없는 죄라는 것 역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제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지난날을 반성하고 그분들의 아픔을 생각하며 하루하루 사죄로서 살아가는 것뿐이기에 이렇게 반성의 글을 적습니다.

• **교정에서 8개월이라는 시간을 보내니** 알게 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사과한다는 것과 잘못에 대해 용서를 구하는 일은 상대방이 느낀 아픔을 알 수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의 아픔이 얼마나 컸는지 감히 기술할 수 없기에 앞으로 저는 매 순간 지난날을 반성하고 피해자분들과 그 가족에게 사죄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 참회의 시간을 통해 피해자분들의 하루가 혹은 단 일 초라도 더 행복해지기를, 저의 진심이 그분들에게 닿기를, 언젠가는 고통의 긴 터널을 지나 희망찬 미래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빌어 봅니다.

청
렴

마음만 받겠습니다

글 서울구치소 교위 문규종

66

업무와 일상을 분리해야 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결연하게 끊을 줄도 알아야 한다.
어렵지만 올바른 행동을 하는 것, 그것이 공직자의 청렴을 바라는
국민의 마음에 보답하는 길이라 생각한다.

99

진정한 '청렴'에 대해 생각하다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과 관련해 '청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여전히 뜨겁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공익광고를 제작해 대대적으로 청탁금지법을 홍보하고 있다. 공익광고 내용은 이러하다. TV 드라마의 한 등장인물이 은밀한 말투로 "이번 것만 잘 부탁해"라며 양복 안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내 주인공에게 건넨다. 주인공의 얼굴이 확대되고, 많은 시청자가 이를 숨죽이며 지켜본다. 이때 주인공은 빙그레 웃으며 말한다. "받겠습니다." 이내 시청자들의 실망 섞인 한숨이 터져 나온다. 이때 주인공이 "‘마음만’ 받겠습니다"라며 반전이 있는 말을 하고 드라마를 보던 이들이 모두 일어나 환호한다. 그리고 자막이 이어진다. "청렴한 마음과 거절하는 용기, 우리 모두의 바람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이 광고를 봤거나 혹은 비슷한 내용을 접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 광고를 보고 매우 의아했다. 마음만 받겠다고? 받아들인다는 그 마음이 과연 어떤 마음일까. 비록 돈은 안 받지만, 그 부정한 마음은 쟁겨 보겠다는 의미처럼 들리기 때문이다. 그것은 과연 부정, 비리와 무관하다고 볼 수 있을까? 청렴이란 부정한 마음까지도 거절하는 것인데 말이다. 돈이 오가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과연 확실한 거절이라 할 수 있는 것인가?

부정청탁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공직자 등은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는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제2항 “공직자 등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이를 소속 기관장에게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신고해야 한다.”

위 법조문을 상황에 맞게 적용했다면 광고 속 주인공은 ‘지금 당신이 하는 행동은 부정청탁이니 나는 이를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고, 지금 철회하지 않는다면 신고하겠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해야 한다.

교정공무원의 업무 중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 제169조 제3항에 “계호 업무를 하는 교정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요구나 제의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단호히 거절할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부정청탁을 받았다면 웃으면서 ‘마음만 받겠습니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단호하게 ‘지금 뭐 하는 행동입니까. 당장 철회하세요!’라고 소리쳐야 마땅했다. 그래야 부정청탁을 하려던 사람이 깜짝 놀라 다음부터는 시도조차 하지 못할 것이다.

떳떳한 우리가 되기 위한 길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상대의 선의를 거절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사회적 통념이 깊게 자리하고 있다. 그러나 부정과 불의, 불법은 이런 작은 틈을 파고든다. 한때 나에게 도움을 준 사람이라고 해서 공직에 올라 보답하는 것은 의미가 아니다. 업무와 일상을 분리해야 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결연하게 끊을 줄도 알아야 한다. 어렵지만 올바른 행동을 하는 것, 그것이 공직자의 청렴을 바라는 국민의 마음에 보답하는 길이라 생각한다.

범죄 피해자를 보는 다른 시선

임상수사심리학자·상담심리학과 교수 김태경

psychology

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큰 요즘, 서원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김태경 교수는 언론매체에서 굉장히 많이 찾는 인물이다. 언제나 한결같은 차분함으로 범죄와 범죄 피해자에 대해 이야기하는 그는 요즘 주목받는 범죄 전문가들과는 또 다른 결로 사람들의 내면을 깊숙이 건드리고 있는 심리전문가이기도 하다. 최근 『용서하지 않을 권리』라는 책을 펴내 범죄 피해자를 보는 사회의 시선을 온건하게 돌리고자 시도하는 그를 만났다.

글 이경희 사진 이정도

진심 어린 눈으로 범죄 피해자를 바라보다

소박하고 편안하다. 김태경 교수의 첫인상이다. 누구라도 그 앞에 서면 자신의 속내를 털어놓거나 감춰뒀던 내밀한 비밀을 말하고 싶은 사람, 심리학자인 그에게 덧씌워진 환상인지 모르지만 적어도 그는 마주한 이의 마음을 여는 그런 인물이다. 김태경 교수가 처음 심리학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지극히 평범한 이유에서다.

“제가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을 때만 해도 심리학은 잘 알려지지 않은 학문이었어요. 철학과 심리학에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는 사람도 많았으니까요. 심리학을 선택한 이유는 단순해요. 당시 사춘기였던 제 마음을 저도 모르겠으니까, 심리학을 공부하면 최소한 내가 내 마음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렇게 시작한 심리학은 상상과 아주 달랐다. 먼저 기초심리학을 배워 탄탄히 기반을 다져 놔야 하는데, 그 과정이 너무 재미없고 어려웠던 것. “매일 뇌 구조를 그리고 뇌의 어디가 망가지면 무슨 장애가 생기는지 배우고, 전자계산기를 들고 다니면서 통계 공부를 하고....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 달랐어요. 그걸 뒤늦게 알았죠(웃음).”

그 위기(?)를 넘긴 김태경 교수는 응용심리학으로 분야를 넓혔고 학부 졸업 후 석사 과정과 수년간의 현장 업무를 거쳤다. 그가 범죄심리학과 본격적으로 인연을 맺은 것은 임상심리전문가로서 병원에서 일하다가 2004년 아동 성폭력 피해자 전담 기관인 해바라기센터의 설립과 함께 그곳으로 자리를 옮기면서부터였다.

“피해자를 상담하면서 다양한 것들을 배웠고, 경험이 쌓이다 보니 피해자 심리에 대해 경찰, 검찰, 법원 관계자를 대상으로 교육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 더 전문적인 지식의 필요성을 느꼈고 박사 과정을 시작했어요. 박사 학위를 받은 뒤에는 대학으로 자리를 옮겼고, 2012년부터 강력범죄 피해자들을 돋는 스마일센터장을 겸직하면서 피해자 지원업무를 했습니다.”

김태경 교수가 쌓은 풍부한 현장 경험과 전문이론을 필요로 하는 법원, 사법 기관이 늘어나자 덩달아 김 교수의 활동 영역이 넓어진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피해자의 고통에 둔감해진 세상

시대에는 트렌드가 존재한다. 한때 TV만 틀면 요리사가 보였듯 지금은 범죄 관련 전문가들이 수많은 프로그램에 나와 대담을 나누고 범죄 사건과 범죄자를 분석한다. 김태경 교수는 이를 두고 “시청자들을 현혹하기에 참 좋은 재료”라는 말을 꺼냈다.

“프로파일러나 범죄 쪽으로는 출연 요청이 있어도 웬만하면 잘 안 나가려고 해요. 제가 아니어도 이야기해 주실 분들이 많으니까요. 방송국에서는 과거 사건을 재조명해야 사회적인 경각심도 높아지지 않겠냐고 말하며 출연을 부탁하지만 사실 부작용이 하나 있습니다. ‘비열한 세계 중후군’이라는 개념인데, 언론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안전하지 않고 누군가가 마음만 먹으면 이런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메시지를 받으면 사람들은 실제보다 세상이 훨씬 더 비열하다고 지각한다는 거예요. 모순적인 건 피해자가 어떤 고통을 겪을지에 대해서는 오히려 둔감해진다는 겁니다. 피해자의 고통에는 공감하지 않는 이중성이 드러나는 거죠.”

범죄자 이야기가 아닌, 피해자 이야기하고 싶다고 하면 반기지 않는 현실과 김태경 교수의 말이 맞닿아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김태경 교수가 『용서하지 않을 권리』를 펴낸 것도 크게 두 가지 의도가 있어서다. 하나는 ‘피해자의 경험은 당신이 아는 것과 결이 다를

“교정교화를 통해 수용자가 건전하게 살아가도록 돋는 게 이익이라는 건 분명해요. 그들이 사회로, 공동체로 돌아왔을 때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니까요.”

수 있으니 함부로 아는 체하지 마라’, 또 하나는 ‘당신의 선량한 마음을 잘 아니 그 마음을 피해자에게 정말로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전하라’는 것이다.

“결국 사람들이 피해자의 이야기는 듣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책을 쓴 거예요. 쓰면서도 편집자와 고민한 점은 일반인이 이 걸 보고 너무 신파적이라고 느끼거나 피해자의 망가진 모습만 지나치게 부각됐다고 보지는 않을까 하는 것이었어요. 피해자가 사건 이후에 얼마나 성장했는지 그들의 변화, 발전하는 모습에 관심을 갖길 원했죠. 책을 쓰면서 혹여 범죄 피해자에 대한 오해를 심화시키는 건 아닐지 많이 경계했습니다.”

“수용자 교정교화로 새로운 피해자 발생을 막아야”

김 교수는 피해자다움을 강요하는 사회에서 발생하는 큰 문제는 제대로 된 피해자 보호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했다. 피해자가 바로 옆에 있으면 돌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 피해자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그 사람을 똑바로 보지 못하게 만든다. 형사 사법 관계자가 이러한 오해와 편견을 갖고 있다면 올바른 판단을 하기는 더 어려워질 것이다. “결과적으로 피해자는 자신에게 씌워지

는 프레임을 거두려는 노력을 반복해야 한다”라는 김 교수의 말이 충격적으로 다가왔다.

피해자에 대한 편견을 이야기하다 보니 주제는 자연스럽게 수용자 교정교화까지 이어졌다. 수용자에 대한 대부분의 정서는 처벌과 응징인데, 교정기관에서는 교정교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 이 간극을 전문가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

“수용자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기도 하지만 공동체의 일원이기도 하거든요. 공동체를 위해서 이들을 그냥 계속 범죄자로 내버려 두는 게 좋을지 아니면, 교정교화를 통해 건전하게 살아가도록 돋는 게 이익인지를 놓고 본다면, 후자가 이익이라는 건 분명해요. 수용자의 교정교화는 그런 맥락에서 봐야 합니다. 그들이 사회로, 공동체로 돌아왔을 때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니까요.”

누구보다 피해자에게 깊은 관심을 두고 그들이 굳건히 땅을 딛고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김태경 교수. 모두가 범죄와 범죄자에 더 집중할 때 그 균형을 맞추고자 노력하는 그의 의지는 지금, 이 순간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한 처방임이 틀림없어 보였다.



Attention



사랑이 배가 되는 가족여행지 ‘봄’을 봄, ‘가족’과 봄



가족은 혈연 이전에 ‘사랑’으로 묶인 관계다. 너무 가까운 사이여서 때로는 서로를 지치게도 하지만, 그것이 결코 상처가 되지 않는다. 서로를 웃게 만드는 힘이자 삶의 원기를 북돋아 주는 에너지, 가족. 1년 중 가장 아름답다는 5월에는 그런 가족에게 선물이 될 만한 여행 한 번 떠나보자. 잊고 있었던 사랑을 확인하는, ‘함께’여서 더 좋은 봄날이 될 테다.

글. 사진 이시목 여행 작가

동물과의 교감에 진심인 가족이라면? 경기 안성팜랜드

아이들에게 놀이공원은 로망이다. 어쩌면 5월을 손꼽아 기다리는 이유도 이 때문이겠다. 하지만 들끓는 사람들로 봄살을 앓기 일쑤. 이럴 때 찾아볼 만한 곳이 안성팜랜드다.

안성팜랜드(이하 팜랜드)는 드넓은 초지에서 칡소, 황소, 당나귀, 면양 같은 25종의 가축을 만날 수 있는 곳이다. 그것도 가축과 교감하며 먹이도 주고 쓰다듬을 수 있는 체험형 목장. 그래서 일까, 당나귀가 사람 옆에서 풀을 뜯고 양이며 염소가 길 여기저기를 쏘다닌다. 그 뒤를 졸졸 따르는 아이들은 아예 양처럼 ‘메해해~’ 밀하고, 염소처럼 ‘음메애~’ 웃는다.

이뿐일까. 이곳에선 승마도 즐길 수 있고, 진기명기 같은 동물 공연도 볼 수 있다. 여기에 자전거를 타는 즐거움은 덤. 4인용 자전거를 타고 초원이 좌우로 펼쳐진 언덕길을 따라 달리는 재미가 쏠쏠하다.

팜랜드는 노란 유채꽃밭과 푸릇푸릇한 호밀밭을 걸으며 한껏 웃기에도 좋은 곳이다. 신나게 웃다 한 번씩 마음에 쏙 드는 풍경을 만나면, 가족들을 그 앞에 세워 놓고 반드시 사진도 찍어주자.

안성맞춤랜드가 ‘안성맞춤’



안성맞춤랜드는 이름 그대로 ‘안성맞춤’인 곳이다. 남사당공연장, 박두진문학관, 천문과학관, 공예문화센터 같은 즐길거리를 두루 갖춘 데다 야생화단지, 잔디밭 같은 쉴 공간까지 충분하기 때문이다. 이 중 공예문화센터에서는 금속·페인팅 등을 체험할 수 있고, 남사당공연장에서는 버나돌리기·줄타기 같은 공연(토·일요일 14:00~15:30)을 즐길 수 있다.

가족들 모두 어서 타세요, 칙칙폭폭 전남 곡성 섬진강기차마을

언젠가 누군가 ‘좋은 사람과는 어디를 가면 좋을까요?’라고 물은 적이 있다. 대답은 간단했다. 사실 좋은 사람과는 어디를 가든 상관없다. 어디를 가도 행복할 것이기 때문이다. ‘어디를 여행할 것인가’보다 ‘무엇을 할 것인가’가 중요한 순간이 이런 때다.

기차여행은 이 ‘무엇을’에 아주 잘 어울리는 테마다. 상상해 보시라. 기차 특유의 리듬에 서로의 호흡이 맞아가는 모습은 그곳이 어디든 정겹다. 특히 ‘뿌뿌’ 소리를 내며 달리는 증기기관차 여행이라면 그 기쁨은 두 배다. 그래서 이 계절에는 곡성이고, 섬진강 기차마을이다.

섬진강기차마을(이하 기차마을)은 윤슬 고운 섬진강을 따라 증기 기관차가 시처럼 지나는 곳이다. 비록 석탄이 아닌 경유로 움직이는 기차지만, 겨우 30여 분 느리게 달리지만, 하얀 연기만은 옛 풍경 그대로다.

별 좋은 봄날엔 기차마을이 한층 화려해져 시선을 모은다. 얼마나 많은 수의 장미가 피는지 아련한 듯 일렁이기까지 한다. 색깔도 분홍·빨강·노랑·하양 등으로 다양해 눈부시다.



곡성에서는 토란탕이 필수



곡성은 우리나라 최대의 토란 생산지다. 토란탕·토란육개장 같은 토란 요리부터, 토란파이·만쥬·토란떡파이·토란빵 같은 토란 디저트까지 다채롭게 맛볼 수 있다. 이 중 배꼽시계가 울릴 땐 들깻가루 듬뿍 들어간 토란탕을 맛보자. 매끈매끈한 토란을 살짝 깨물면 포슬포슬하게 으깨지며 고소한 맛이 난다. 아이들과 함께라면 담백하면 서도 달착지근한 토란 디저트가 괜찮다.



영감 주는 공간을 찾는다면 강원 영월 젊은달와이파크

가끔은 아이에게도, 어른에게도 새로운 문화를 접할 기회가 필요하다. ‘새롭다’는 건 모름지기 상상 밖의 것일수록 인상 깊고, 영감을 주는 법이다.

젊은달와이파크는 이런 면에서 돋보인다. 색깔로 풍경을 뒤엎고 용도를 뒤바꿔 관념을 부수니, 그저 놀라울 따름이다. 빨간 대숲(작품명: 붉은 대나무)과 해로 만든 별(작품명: 목성) 등이 실례다. ‘도대체 어떤 공간이기에 이렇게나 사설이 길까’ 궁금하다.

젊은달와이파크(이하 젊은달)는 미술관이자 박물관이며 공방이다. 상생과 순환이란 키워드를 담은 재생의 공간이면서, 전통문화(술)에 현대미술을 입힌 융복합의 세계다. 자연과 인공의 조화도 꽤나 적절해 눈이 즐겁다.

색채 대비가 공간 전체의 분위기를 좌우하는 대목도 놀랍다. 시선을 압도하는 색채는 단 두 가지, 빨강과 하양이다. 미술관의 얼굴은 대체로 빨강고, 박물관과 공방의 얼굴은 하양다. 빨강은, 입구에 있는 ‘붉은 대나무’에서 가장 강렬한 채도로 빛난다. 시쳇말로 쟁쟁한 빨강색을 입힌 금속파이프를 여러 개 연결해 대숲을 형상화했다. 여행객들이 그 금속 터널을 지나 젊은달로 든다. 젊은달의 ‘진짜’는 여기에서부터 시작한다.

선암마을에서 한반도 찾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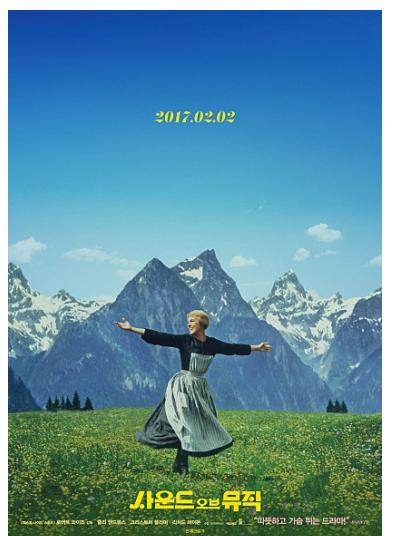


젊은달와이파크에서 선암마을까지는 차로 15분 정도 걸리는 거리다. 선암마을은 서강이 굽이쳐 돌아가며 만들 어진 ‘한반도 지형’으로 유명한 곳. 주차장에서 도보로 20여 분 걸리는 거리의 전망대에 올라서면, 동쪽은 높고 서쪽은 낮은 우리나라 지형의 특성까지 쑥 빼닮은 지형이 보인다. 마을 포구에서는 뗏목 체험도 즐길 수 있다. 뗏목을 타고 한반도의 동해·남해·서해를 유람하는 기분이 쑥 좋다.

뮤지컬의 성공과 가족애를 한 번에 잡은 영화 감동적인 스토리에 음악까지 더하다

음악과 스토리가 만나는 뮤지컬은 이야기를 좀 더 감성적으로 전해준다는 점에서 관객들을 더욱 몰입하게 만든다. 그래서 시대를 넘어 사랑받는 스토리를 가진 영화는 뮤지컬로 만들어지곤 한다.

글 정덕현 문화평론가



사운드 오브 뮤직
© (주)피터팬픽쳐스, (주)팝엔터테인먼트

뮤지컬에서 태어난 작품들

아마 영화의 이야기가 가물가물한 이들도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에서 마리아(줄리 앤드루스)가 아이들과 함께 '도 레미(Do-Re-Mi)송'을 부르는 광경을 기억할 것이다. 또 늘 엄격 하기만 했던 폰 트랩 대령(크리스토퍼 플리머)이 아이들 앞에서 기타를 치며 '에델바이스(Edelweiss)'를 부르는 장면 역시 마찬가지다. 말괄량이 견습 수녀 마리아가 폰 트랩 대령 가의 가정교사로 오면서 일곱 아이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며 대령과 사랑에 빠져 단란한 가정을 이루게 되는 이야기. <사운드 오브 뮤직>은 가족애 이야기와 음악이 만났을 때 시대를 뛰어넘어 오래도록 사랑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작품이다. 그런데 이 영화는 본래 1959년 11월 브로드웨이 무대에 올라 1,443회 이상 장기 공연을 기록한 뮤지컬이다. 대중성이 모두 검증된 뮤지컬이 영화화된 것이다.

<맘마미아> 역시 비슷한 궤적을 가진 뮤지컬 영화다. 그리스 지중해의 아름다운 섬에서 결혼을 하루 앞둔 소피가 우연히 발견한 엄마의 일기장에서 아버지일 가능성이 있는 세 명의 남성을 엄마 이름으로 초대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다. '출생의 비밀' 코드를 활용한 이야기지만, 개방적인 서구 특유의 방식으로 세 아버지 모두를 받아들이며 하나의 가족이 되는 해피엔딩을 그렸다. 아바의 히트곡을 묶어 1994년 뮤지컬로 먼저 제작된 <맘마미아>는 순식간에 전 세계에 반향을 일으켰고, 뮤지컬 제작진들은 2008년 이를 영화로도 만들어 역시 세계적인 성공을 거뒀다.



영화의 성공이 뮤지컬로 이어지다

정반대로 영화가 먼저 성공을 거두면서 뮤지컬로 제작된 작품도 있다. 2000년에 영화로 제작돼 세계적인 호평과 찬사를 받은 <빌리 엘리어트>가 그런 작품이다. 광부들의 파업이 한창이던 1980년대 중반 영국 더럼의 한 시골에서 아버지, 형과 함께 살아가며 발레의 꿈을 펼쳐나가는 11세 소년 빌리 엘리어트의 이야기다. 광부들 특유의 남성적인 분위기가 가득한 마을에서 발레를 하는 소년에 대한 편견이 가족 간의 갈등으로 이어지지만, 결국 가족들은 그 열정을 공감하면서 빌리의 꿈을 이해하고 지지한다. 소수 혹은 약자들의 성장 서사가 가족이라는 틀로 다뤄짐으로써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가 된 것이 이 작품의 성공 이유다.

1994년에 제작된 디즈니 애니메이션 <라이온 킹>도 영화의 성공이 뮤지컬로도 이어진 작품이다. 사자 무파사의 아들 심바가 탄생하자 이를 탐탁찮게 여긴 삼촌 스카의 계략으로 무파사가 죽고 심바가 버려지지만, 결국 다시 돌아와 왕국을 되찾는다는 이야기다. 복수극이 밀바탕에 깔려 있지만, 고향 밖을 떠돌 때 도움을 준 티몬과 품바와의 우정, 어릴 적 친구였지만 이성의 감정을 갖게 된 날라와의 사랑, 고향에 대한 추억과 가족애가 깊은 감동을 준다.

가족애라는 보편적인 이야기가 갖는 힘

지금껏 여전히 뮤지컬로 재연돼 사랑받는 이들 작품에는 앞서도 얘기했듯이 가족애라는 보편적인 이야기가 주로 담겨 있다. 가족 서사는 물론 시대에 따라 조금씩 변주되지만 시공간을 뛰어넘어 누구나 공감하는 이야기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남녀노소 함께 즐길 수 있는 뮤지컬이라는 장르와 만날 때 가족 서사는 더 강력해진다. 게다가 음악은 이야기보다 더 즉각적으로 기억에 각인되는 힘이 있다. 나이 들어 모든 기억이 지워져도 마지막까지 남는 기억이 음악일 정도이니 말이다. 그래서 뮤지컬은 꽤 오랜 시간이 지난다고 해도 주제곡만으로도 그 기억을 소환하는 힘을 발휘한다.

물론 같은 작품이라도 영화와 뮤지컬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뮤지컬 <맘마미아> 같은 작품은 아바의 원곡을 들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음악에 초점을 맞춘 주크박스 뮤지컬¹⁾의 성격이 강하지만, 영화는 진짜 아빠가 누구인가를 찾는 이야기와 배경으로 등장하는 그리스 섬의 모습을 더 중요하게 다뤘다. 영화 <빌리 엘리어트>는 빌리의 성장기를 담은 이야기에 집중하지만, 뮤지컬은 스페터클하게 변화하는 작은 무대에서 춤추고 노래하는 빌리의 모습을 더 강조한다. 또 여러 동물이 등장하고, 아프리카를 배경으로 하는 <라이온 킹> 같은 작품은 뮤지컬로 만들어지면서 갖가지 동물을 형상화하는 의상과 분장이 중요해졌다. 아프리카 특유의 분위기를 암도하는 음악적 장치와 동물의 동작을 안무로 표현하는 춤이 상상력을 무한히 확장해 주는 작품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2년간 문화생활이 제한됐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이제 코로나19가 일상화단계로 접어들면서 공연이나 영화관도 조금씩 기지개를 켜고 있다. 5월 가족의 달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오랜만에 문화생활을 즐겨보는 것은 어떨까. 이럴 때 가족애를 소재로 하는 뮤지컬만한 게 없다.

¹⁾ 음악을 주요 소재로 플롯과 일개를 엮어 무대용으로 재탄생시킨 뮤지컬



맘마미아

© 유니버설필름제작사내셔널 코리아(유)



라이온 킹

© 브에나비스타코리아, 소니 픽처스 릴리징 브에나비스타 영화(주)

맛과 보양을 상징하는 긴 물고기

장어



장어(長魚). 이름 그대로 '긴 물고기'다. 뱀장어든 봉장어든 결국 '장어'라는 이름이 붙은 생선은 길고 맛있다. 뱀을 닮아서 징그럽기도 하지만, 오히려 몸에 좋다는 이미지가 강하다.
풀딱풀딱 힘차게 꼬리 치는 활기와 강한 생명력이 있는 장어를 소개한다.

글. 이우석 놀고먹기연구소장



뱀을 닮은 전통 보양식

장어를 보양식의 유품으로 꼽는 것은 우리네 관념에서 나왔다. 장어를 고아 먹고 기력을 회복했다는 연산군의 일화도 있다. 실제로 장어는 몸에 좋다. 뱀장어는 소화 흡수율이 뛰어난 단백질과 비타민A 등 무기질을 다량 함유했다. 비타민과 무기질은 기력 회복에 '급전을 당겨 주듯' 즉각적인 도움을 준다. 물론 맛도 좋다.

비싸니 당연히 구이로 먹는 것이 최고 호사다. 탕으로도 먹지만, 대부분 구워 먹는다. 민물장어(뱀장어) 배를 갈라 가로누운 '3자'로 활짝 펴고, 배와 등 부분을 뒤집어 가며 번갈아 구우면 된다. 소금구이나 양념구이로 즐기고, 생강을 곁들여 먹는다.

'봉장어'와 '아나고'의 차이점은?

갈치나 미꾸라지를 제외하고 긴 것은 하나같이 장어라 부르지만, 사실 장어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 장어 중에는 사철 즐기는 봉장어회도 있다. 사람들에게는 봉장어보다 일본말인 '아나고'로 널리 알려졌다.

봉장어는 천에 넣고 불끈 쌔서 보송보송하게 즐기는 회로 유명하다. 담백하고 고소하니 씹는 맛이 좋다. 아예 칼로 잘게 다져 숟가락으로 퍼먹기도 한다. 이뿐만 아니라 굽거나 찐셔도 먹는다. 뱀장어가 워낙 비싸니 뷔페에 가면 비슷하게 구워 놓은 봉장어구이도 볼 수 있다.

한여름에 살이 오르고 맛이 드는 갯장어도 목소리를 낼 만하다. 갯장어지만 갯벌에 살지는 않는다. '개장어'에서 나온 이름이다. 날카로운 이빨로 잘 물어댄다고 불은 이름이다. 정약전은 『자산어보』에서 아예 '개이빨장어(犬牙)'라 했다. 갯장어는 잔가시가 많은 탓에 손질이 까다로워 값비싼 식자재로 취급받는다. 갯장어 한 점에 칼질이 몇 번씩 들어가는지 모른다.

이제는 별미로 즐기는 '멱장어'

종류는 다르지만 비슷한 외관의 곰장어도 장어를 논할 때 빠지지 않는다. 전국적으로 '꼼장어'로 통하는 곰장어는 원래 이름이 '멱장어'다. 일반적인 장어와 생김새 뿐만 아니라 생존 환경, 생태적 특성, 맛이 완전히 다르다. 특이하게도 멱장어는 눈이 없다. 외피 밑에 가려져 보이지 않는다. 사람만 멱장어의 눈을 볼 수 없는 게 아

니라 자신도 외부 사물을 볼 수 없다. 턱도 없어 외계인의 입처럼 생긴 이빨과 흡착판만 있을 뿐이다. 등뼈와 늑골도 없다. 아주 무른 연골 한 줄기만이 몸속에 길게 뻗어 있는데, 먹장어를 먹을 때 하얀 당면처럼 튀어나오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소화와 순환 기관은 매우 단출한데, 3억 년 전부터 거의 진화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 한다. 하지만 맛은 좋다. 보양을 위해 먹는 이도 있지만, 꼬들꼬들 씹는 맛이 뛰어나 술안주로 찾는 이가 더 많다. 예전에는 저렴해서 많이 먹었고 지금은 별미라 찾는다. 이 밖에도 칠성장어, 곰치, 무태장어 등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장어는 전북 고창군의 풍천장어가 맛있기로 유명한데, 풍천(風川)은 지명이 아니다.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기수 지역으로 흐르는 냇물을 의미한다. 인천 강화도 갯별장어와 경기 파주시, 전남 영광군과 무안군, 경남 진주시, 충남 공주시 등 장어로 유명한 지역이 곳곳에 많다.

아직도 풀리지 않은 장어의 비밀

세상의 밥상에는 이처럼 많은 종류의 장어가 있는데, 사실 저마다 굉장한 차이가 있다. 흔히 우리가 연상하는 장어는 뱀장어(학명 *Anguilla japonica*)다. 원래 공식 명칭이 뱀장어지만 파는 상인들은 '민물장어'라 달리 부른다. 뱀처럼 생겼으나 사람들이 험오스러워할까 봐 그렇다.

불판 위에서 자주 봤지만 사실 장어는 신비한 이종이다. 어느 생선과 달리 밝혀진 것이 별로 없다. 바다에서 강으로 돌아오는 연어와 반대로, 장어는 산란하기 위해 바다로 나간다. 수천 km 떨어진 어딘지 모를 심해에 가서 산란하고 그 유어가 다시 머나먼 길을 거쳐 육지의 하천까지 돌아온다. 우리나라의 장어는 필리핀 인근에서 태어난 유어가 돌아온 것이다. 어떻게 길을 알고 돌아오는지는 여전히 알 수 없다.

앞에서 깨어난 직후에는 투명한 나뭇잎처럼 생겼는데, 점차 얇은 실뱀장어로 변이한다. 유기물이 많은 하천으로 올라오면서 많은 먹이를 포식해 급격히 살이 오르고, 기름기 가득한 뱀장어로 자란다. 민물에서 길게는 10년 까지 산다. 그래서 민물장어라 부른다. 신기한 것은, 이 때는 죄다 수컷이지만, 다시 산란을 위해 바다로 나가면서 암컷이 된다는 사실이다.

교정공무원의 직무탈진감이 직무몰입 및 직업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연구①

- 직업윤리의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목차

- I. 서론
- II. 이론적 배경
- 1. 교정기관의 변천과정
- 2. 교정공무원 특성
- 3. 관련변수에 대한 논의
- 4. 관련변수에 대한 선행연구

III. 연구방법

- IV. 연구결과
- 1. 교정공무원의 일반적 특성
- 2. 연구가설의 검증

V. 결론

- 1. 연구결과 요약
- 2. 연구의 시사점 및 함의
- 3.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제언

인치견*

-
- * 서울남부구치소 교감
- * 이 논문은 필자의 석사학위논문(2018)을 수정·요약한 것임 / E-mail: mail24@korea.kr

국문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수용자의 교정교화와 사회복귀를 업무목표로 하면서 다른 일반직 공무원과 다른 특수한 업무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정공무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직무탈진감에 대하여 알아보고, 또 직무탈진감은 직무몰입과 직업안녕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직업윤리의식의 매개효과를 통해 교정공무원의 직무탈진감이 직무몰입과 직업안녕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직무몰입과 직업안녕감의 향상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무엇인지를 살펴보기자 하였다.

를 높이기 위해 권위적인 조직문화를 바꿔야 하고, 전문교정의료시설 증설과 현대화, 과학적 보안장비 도입과 시대에 맞는 근무환경의 개선이 필요함을 볼 수 있었다.

셋째, 교정공무원의 직업에 사명감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게 해 줘야 한다. 또 구체적으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교정현장에서 쌓인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 운영 검토와 교정공무원의 인식 개선하기 위해 교정공무원에 특화된 교정공무원법 제정이 필요함을 제안하게 된다.

향후 연구과제로는 교정행정에 대한 낮은 사회적 평가를 개선하려는 방안과 현장근무자의 직업안녕감에 관한 학계의 관련 연구도 미비한 수준에 있어서 이를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해소 방안도 심도 깊은 연구할 필요성도 발견하게 된다.

주요어 : 교정공무원, 직무탈진감, 직무몰입, 직업안녕감, 직업윤리의식

I. 서론

교정행정 조직은 범죄에 대한 수사와 기소, 재판과 집행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형사사법체계에서 마지막 단계라 할 수 있는 교정행정 조직의 구성원으로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하기 위해 한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교정공무원은 구체적으로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사회복귀 도모라는 업무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처럼 교정공무원은 교도소, 구치소 등 교정시설의 일선 현장에서 수용자를 직접 상대하고, 수용자 계호업무와 교정교화 업무라는 다른 성격의 업무를 같이 수행한다는 점에서 일반 시민을 상대로 일반사무 및 행정업무를 주로 하는 일반 공무원이나 사기업체 직장인과는 다른 특수한 업무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러한 특수 업무환경 속에서 교정공무원이 느끼는 직무탈진감은 다른 직종에 근무하는 종사자에 비해 높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일반 직장인의 3배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류종천, 2004; Finney, 2013). 또한, 연구자들은 교정공무원이 과밀수용과 교정행정 업무의 위험성, 교대근무, 직무자율성 결여, 불충분한 인력, 과도한 업무량, 조직으로부터의 지원 부족, 관료적 조직문화, 역할갈등과 역할모호,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 등이 이유로 과도한 직무탈진감을 경험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이 재범을 통하여 발생하게 되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 등을 고려하면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재범방지'를 목표로 하는 교정행정 업무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각자의 직업에서의 윤리적인 판단능력들이 모이면 결국은 그 영

향이 조직으로 이어지듯이 직장에서의 직업윤리의식으로의 행동은 결국 교정 조직문화의 변화로 이어지게 될 수 있도록 교정공무원들이 직무에 충실히 임하게 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맡은 직무에 몰입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직장 문화를 조성해야 하며, 행복감을 가지고 만족스러운 삶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삶의 동기부여가 필요하다.

이는 교정시설 내에서 현실적으로 교정직 공무원이 현재 어떠한 상황에 있으며 또 업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는지 등의 심도 있는 진지한 분석이 미흡하고, 교정공무원의 직업안녕감에 관한 학계의 관련 연구도 미비한 수준에 있어 이를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을 통하여 직업윤리의식을 바탕으로 교정공무원의 직업안녕감의 증진과 자부심을 가지고 직무에 몰입할 수 있는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교정이념의 근본적인 목표는 수용자를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이 최우선이 아니라 올바른 인성교육, 직업훈련교육, 근로정신 함양을 통하여 건전한 국민으로 다시 거듭나게 하려면 교정공무원은 자신의 맡은 직무에 자긍심을 가지고 '수형자 교정교화'를 통한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라는 업무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교정공무원들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경험하는 직무탈진감을 극복하고, 직업안녕감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먼저 교정공무원의 직무탈진감은 직무몰입과 직업안녕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 교정공무원의 직업윤리 의식은 직무탈진감과 직무몰입에 대한 매개효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하여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연구문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본 장에서는 일반직 공무원과 다른 특수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정공무원의 직업안녕감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교정기관의 변천과정과 교정공무원의 특성 및 관련 변수의 정의 및 선행 연구를 알아본 후에 각 변수 간의 선행연구를 살펴보기자 한다.

1. 교정기관의 변천과정

1) 교정행정 기반 구축기(1948~1950년대)

우리나라 교정행정은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1948년 11월 4일 「법무부 직제」가 제정·공포되고 법무부 내 행정국의 부처로 편입되면서 감사과, 형무과, 교육과, 보호과, 후생과, 작업과 등의 부서로 조직개편을 단행하였다. 이 시기에는 행정 지도이념을 "송고한 동포애로부터 출발하여 범죄인을 교정(矯正)하고, 사회에 복귀시키는 교육형주의 구현"의 교화이념이 전면에 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이념

을 바탕으로 1950년 3월 2일에 '행형법'이 제정되어 우리나라 행형목적을 교화이념의 실천에 있음을 선언하고 이를 실천함으로써, 교정행정의 법적 토대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시장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허주욱, 2002).

2) 교정행정 실천기반 구축기(1960~1980년대)

이 시기에는 행형법이 법을 집행하기에 법령이 미비하여 1961년 12월 23일에 행형법의 1차 개정을 단행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형무소·형무관을 교도소·교도관으로 그 명칭을 바꾸고, 새로운 교화제도인 종파교회·귀류와 구치소 신설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또한, 1989년에 교정시설 근무체계가 2교대에서 3부제로 전환되면서, 2,100명의 교정공무원을 증원하여 수용처우의 향상을 모색하고 교정행정 실천기반을 구축하였다(허주욱, 1999: 183).

3) 교정행정 내실화 실천기(1990~2000대 초반)

이 시기에는 교정행정 이념을 실천하기 위한 도약기로 1991년에 서울, 대구, 대전, 광주 등 4개 지역에 교정시설의 중간감독기구인 지방교정청이 신설되었고, 인천소년교도소 자리에 인천구치소(1996년)를 신설하였다. 인천소년교도소는 천안으로 신축 이전하여 천안소년교도소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같은 해에 수원구치소(1996년)를 신설하고, 울산 지역 미결수용자 인권보호와 경찰서 대용감방 해소를 위한 울산구치소(2004년)를 신설하였다(허주욱, 1999). 그리고 교정행정 이념에 따른 수용자 처우에도 많은 변화를 추구하였다.

4) 교정행정 성숙기(2006년 이후)

이 시기에는 교정행정 현대화를 위한 시설의 신축과 증설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2006년에는 서울구치소 등 15개 기관을 3부제에서 4부제 근무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시범근무를 시행하였고, 2012년에 이르러 전국교정시설이 전면 시행하게 되었다. 그리고 2008년 12월 22일에 행형법을, 2015년 3월 27일에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하면서 처우 및 인권보장에 획기적 발전을 가져오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교정시설 현대화 추진에 있어 밀양구치소, 상주교도소, 해남교도소, 2015년 정읍교도소 신축, 2015년 10월 광주교도소가 신축 이전하였다.

2. 교정공무원 특성

교정공무원은 교정행정의 주체로, 미결수용자와 수형자를 사회로부터 격리시켜 건전하게 사회복귀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는 국가공무원의 지위를 가진다. 또한, 고도의 전문가 수준의 직무지식과 범죄성향 교정을 위한 수용자 처우기법 숙지, 질서유지, 그리고 교정사고 방지를 위한 심신단련, 보호 장비 사용법 숙달에 이르기까지 실로 광범위한 교육훈련과 인격이 요구되는 종합 과학적 직무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직무특성을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신체적 위험 노출

교정공무원은 교정시설이라는 특수성으로 "또 다른 재소자(the other prisoner)", "구금된 교도관(guards imprisoned)", "전문적 재소자(professional prisoner)"라고 불릴 만큼, 스스로 비하 표현의 '막장'으로 부르면서(Lombard, 1981; Martinez, 1997; Wick, 1980), 격리된 수용자와 동일한 공간에서 통제 또는 도움 주는 역할의 위험요인이 항상 존재하는 위험한 직무특성을 가지고 있다(이수정·윤옥경, 2004).

2) 교정교화와 보안의 역할 간 갈등

교정의 목적은 수용자를 사회로부터 격리·구금하여 사회에 원만히 복귀시켜 교화·개선하도록 지도하고, 장래 범죄예방과 사회보호, 그리고 재범방지를 도모하는데 있다(정갑섭, 2005). 그러나 구금을 통한 수용질서 확립과 교정교화 간 목표가 서로 상반된 역할에 있어 이해관계가 엇갈리게 되면 갈등을 유발하게 된다.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기대에 직면하는 역할 갈등으로, 주로 보안과 수용자를 재사회화시키는 교정교화 간 관계에서 기인한다(Schuler, 1980). 그리고 교정공무원은 질서유지를 위해 수용자를 관리·감독해야 하고, 크고 작은 고충을 처리해야 함과 동시에 여러 가지 상황판단에 직면하게 된다.

3) 열악한 근무환경

최근 수용인원 증가로 인해 교정공무원의 인력충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획기적으로 교정프로그램을 향상시키는 정책추진으로 업무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이순길, 2002). 한상임(2006)의 교정공무원 사기진작 방안에 관한 연구에서도 열악한 환경과 직무, 그리고 격리된 공간에서 불규칙한 근무조건에도 불구하고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현실에 직면에 있으며, 전국 52개 교정기관 중 2016년 말 기준으로 경과연수가 40년

이상인 교정시설이 9개(17%), 30년 이상인 교정시설이 13개(25%), 20년 이상인 교정시설이 10개(19%)에 달하는 등 열악한 물리적 근무환경에서 교정공무원들이 자부심을 느끼기는 어려울 것이다(법무부 교정통계연보, 2017: 47).

4) 권위주의적 조직문화와 낮은 사회인식

교정조직의 최우선 임무는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있으며, 지위명칭, 계급구조와 더불어 엄격한 수직적 지휘체계의 조직문화가 존재한다(이백철, 2015).

1990년도 말 이후 교정당국은 교정시설의 구금확보를 최우선으로 하여 수용자에 대한 인권침해의 소지가 많았던 응보형 행형이라는 교정이념에서 벗어나 수용자의 교화 및 인권과 처우상의 권리 대폭 강화하는 다양한 정책과 각종 처우를 시행하고 있다.

3. 관련변수에 대한 논의

1) 직무탈진감의 정의

직무탈진감(job burnout)은 직무수행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와 긴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업무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려는 감정반응을 의미한다. 즉 업무 종사자들이 경험하는 정서적, 신체적 소진에 미치는 직무탈진감(job Burnout) 연구를 Freudenberger(1974)가 처음 발표하면서 여러 분야에 지속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이는 접촉이 많은 종사원이 장시간 동안 스트레스에 노출됨으로써 겪게 되는 부정적인 심리를 경험한 것을 말한다.

2) 직무몰입의 정의

한 개인이 자기 일에 대하여 심리적으로 일체감을 가지고 있는 정도와 개인에게 있어서 자기 일이 차지하는 중요도를 의미한다. 또 한 개인의 능률 정도에 따라 자발적인 참여 의욕의 정도를 말하기도 한다.

3) 직업안녕감의 정의

직업안녕감은 직장생활에서의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직업에 대한 선호와 만족감 등 직업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이 반영되어 심리적으로 개인의 삶이 전체적으로 즐겁고 기쁜지, 개인이 자신의 삶에 만족하며 행복감을 느끼고 있는지의 전제적인 삶의 만족도로 정의된다(Diener, 1984).

4) 직업윤리의 정의

국어사전에 의하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일정한 기간 계속하여 종사하는 일을 직업이라 명시하고 있고, 윤리란 사람들이 마땅히 행하거나 지켜야 할 행위의 규범을 말한다.

윤리란 일반적으로 행위가 옳고 그름이나 선악에 대한 판단 기준의 체계로서 여기서 판단 기준이란 어떤 행위가 윤리적인가 아닌가를 결정하는 기준을 말하는 것이다(Bartels, 1983), 직업윤리란 "직업인에게 평균적으로 요구되는 정신적 자세나 행위규범"으로 직업인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일반윤리의 기본원칙이다(전정태, 1989).

4. 관련변수에 대한 선행연구

1) 직무탈진감과 직무몰입과의 관계

교정공무원은 구금된 수용자들의 일상생활을 24시간 관리·감독하고 고충불만 등을 처리해야 하는 직무특성으로 인해 직무탈진감을 높게 경험한다.

직무탈진감 선행요인으로, 개인특성과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고, 이에 따라 차이가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Shoptaw, Stein 와 Rawson(2000)의 연구에서, 학력이 높을수록 감정고갈을 적게 경험하고, 직업 효능감 감소 또한 적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형열 외(2010)의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186명의 여성 사회복지 공무원을 대상으로 개인적 특성, 클라이언트, 직무스트레스, 전문성, 사회적지지, 소진, 냉소, 성취감 저하는 나이가 낮을수록, 전문적 직무 및 근무환경에 대한 직무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직업 소명의식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교정공무원의 직무탈진감과 직업안녕감과의 관계

박병용(2012)은 교정공무원의 직무만족도에 관한 연구에서 교정공무원의 전체 직무만족도는 5점 만점에 3.33으로 보통이상의 수준이었다. 교정공무원의 직무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은 '직업의식'에 대한 만족도였다.

3) 직업안녕감과 직업윤리와의 관계

우리나라의 선행연구 중에서는 직업윤리 의식이 직업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밝힌 연구는 거의 없다. 다만 직업윤리 의식이나 직업안녕감의 하위개념에 관련된 비슷한 연구로는 목혜정(2013)이 보육교사의 교사 효능감이 높을수록 교직 윤리의식 수준이 높은 것을 검증한 바가 있다. 구병창(2011)은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의식이 직무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므로 직업윤리의식의 제고를 제시하였고 연구를 바탕으로 직업안녕감과 직업윤리와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4) 각 변수 간의 선행연구 관계

각 변수 간의 선행연구를 통하여 설문지를 구성하였으며 설문지의 구성 내용은 교정공무원의 직무탈진감이 직무몰입에 미치는 영향과 또 교정공무원의 직무탈진감이 직업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직무탈진감이 직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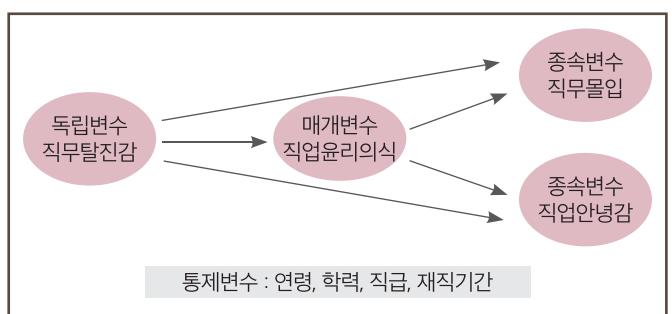
윤리의식에 미치는 영향, 교정공무원의 직업윤리의식이 직무몰입에 미치는 영향, 교정공무원의 직업윤리의식은 직무탈진감 및 직무몰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직업윤리의식은 직무탈진감 및 직업안녕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측정하는 총 3개 부분으로 구성하였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직업윤리의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교정공무원의 직무탈진감이 직무몰입 및 직업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그림 3-1>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변인은 직무탈진감, 직무몰입, 직업안녕감, 직업윤리의식 등이다. 연구대상인 교정공무원의 직무탈진감의 변인으로 피로, 스트레스 등을 독립변수로 하였으며, 직무몰입과 직업안녕감(직무자율성, 환경통제력, 긍정적 조직관계, 자기수용)을 종속변수로, 직업윤리의식(청렴, 정의, 책임, 봉사, 소명의식, 성실)을 매개효과로 설정하였다.

<그림 3-1> 연구모형



2. 연구가설

가설1	교정공무원의 직무탈진감은 직무몰입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	교정공무원의 직무탈진감은 직업안녕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3	교정공무원의 직무탈진감이 직무몰입에 미치는 영향은 직업윤리의식에 의해 매개될 것이다.
가설3-1	교정공무원의 직무탈진감은 직업윤리의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3-2	교정공무원의 직업윤리의식은 직무몰입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4	교정공무원의 직무탈진감이 직업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은 직업윤리의식에 의해 매개될 것이다.
가설4-1	교정공무원의 직무탈진감은 직업윤리의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4-2	교정공무원의 직업윤리의식은 직업안녕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연구대상자 선정방법

본 연구는 전국 53개 교정기관 중에서 경인지역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교정공무원 중에서 350명을 대상으로 2017년 8월 7일부터 8월 21일 까지 약 2주간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직접 회수하는 방법으로 실시하였으며, 회수된 질문지 338부 중 불성실한 응답을 한 11부를 제외한 327부가 최종 분석에 투입되었다.

4. 측정도구 구성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설문지를 제작 및 수정·보완하였다. 설문지의 구성 내용은 조사대상 교정공무원의 인구학적 특성과 직무특성을 묻는 15문항과 직장생활과 관련된 탈진감(job burnout) 16문항, 직무몰입 9문항, 직업안녕감을 묻는 25문항, 직업윤리의식을 묻는 6문항 등 총 71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구체적인 변수별 하위요인과 문항번호 그리고 문항 수는 <표 3-1>에 설명하고 있다.

<표 3-1> 설문조사지 문항구성

변수명	하위요인	문항번호	문항 수
인구학적 특성	성별, 나이, 결혼상태, 결혼기간, 학력, 종교, 흡연상태, 음주상태		8
직무특성	직급, 재직기간, 근무부서, 현부서 근무기간, 보안과 근무지, 수용동 유형, 보안과 근무기간		7
직업윤리	청렴	I. 1	1
	정의	I. 2	1
	책임	I. 3	1
	봉사	I. 4	1
	소명의식	I. 5	1
	성실	I. 6	1
직업안녕감	직무자율성	II. 1-7	7
	환경통제력	II. 8-13	6
	긍정적 조직관계	II. 14-19	6
	자기수용	II. 20-25	6
직무탈진감	소진	1-5	5
	냉소	6-10	5
	직업자신감	11-16	6
	직무몰입	1-9	9
통제변수	나이, 학력, 직급, 재직기간	(4)	
합 계		71문항	

1) 독립변수(직무탈진감)

본 연구는 종속변수의 영향관계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교정공무원의 직

무스트레스가 직무탈진감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이에 측정도구로 MBI-General Survey(MBI-GS; Schaufeli, Leiter, Maslach과 Jackson, 1996)의 정서적 소진(emotional exhaustion)의 5문항, 냉소(Cynicism)의 5문항, 비인간화(depersonalization)의 5문항 등 총 16문항으로서, 진종순(2016)이 사용한 척도를 재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탈진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직업자신감 하위요인 6개 문항은 역 채점되었다.

직무탈진감의 하위변인들의 신뢰도는 '정서적 소진' 5문항 Cronbach's α .866, '냉소' 5문항 Cronbach's α .872, '직업자신감' 6문항 Cronbach's α .839이었다. 직무탈진감 총16문항의 Cronbach's α는 .897이다. 본 연구에서는 직무탈진감의 하위변인별로는 분석하지 않는다.

2) 종속변수(직무몰입·직업안녕감)

(1) 직무몰입

본 연구에서는 직무몰입을 측정하기 위하여 윤정윤(2005), 안치언(2008), 신현숙(2013) 등의 연구를 근거로 차명광(2015)이 사용한 직무몰입에 관한 설문 9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몰입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직무몰입 총9문항의 Cronbach's α는 .896이다.

(2) 직업안녕감

본 연구에서 사용한 직업안녕감은 심리적 안녕감의 범위를 직업생활 장면으로 축소한 개념으로, 직업이 갖는 고유한 특성을 반영한 직업심리학적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직업안녕감의 하위변인들의 신뢰도는 직무자율성 7문항 Cronbach's α .833, 환경통제력 6문항 Cronbach's α .843, 긍정적 조직관계 6문항 Cronbach's α .891, 자기수용 6문항 Cronbach's α .913이었다. 직업안녕감 총25문항의 Cronbach's α는 .929이다. 본 연구에서는 직업안녕감의 하위변인별로는 분석하지 않는다.

<표 3-2> 직업안녕감 척도의 신뢰도 분석 결과

직업안녕감 척도	문항번호*역산처리(제거문항)	문항수	Cronbach α
직무자율성	1-7	7	.833
환경통제력	8-13	6	.843
긍정적 조직관계	14-19	6	.891
자기수용	20-25	6	.913
직업안녕감		25	.929

3) 매개변수(직업윤리의식)

직업윤리는 일 중심성, 자기 독립성, 근면성, 여가시간에의 관점, 도덕성과 윤리, 만족시간의 지연, 시간의 합리적 관리 등을 측정하는 6문항으로서 신현숙(2013)가 사용한 직업윤리의식 척도를 사용하였다. 점수

가 높을수록 직업윤리의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직업윤리의식 총 9문항의 Cronbach's α는 .837이다.

<표 3-3> 직업윤리의식 척도의 신뢰도 분석 결과

직업안녕감 척도	문항번호*역산처리(제거문항)	문항수	Cronbach α
직업윤리의식	1, 2, 3, 4, 5, 6	6	.837

4) 통제변수

통제변수의 측정변수로는 나이, 학력, 직급, 재직 기간 등을 선택하였다. 나이는 소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직업자신감에는 학력과 재직기간이 많을수록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개인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을 위하여 SPSS 2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사용될 측정도구의 내적 일치도 확인을 위한 신뢰도 검증에는 Cronbach's α계수를 사용하였다. 학자마다 견해의 차이는 있으나 보편적으로 Cronbach's α계수는 0.60 이상이면 만족한다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보수적으로 0.7 이상을 기준으로 신뢰도를 평가하여 분석에 투입여부를 결정하였다.

둘째, 연구대상자의 특성과 실태 파악을 위해서 기술통계(빈도, 평균, 백분율,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셋째, 교정공무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직무환경특성에 따른 연구변인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test와 Oneway-ANOVA로 검증을 실시하였다.

넷째, 연구변인 간의 상관관계와 다중공선성의 확인을 위하여 Pearson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직무몰입과 직업안녕감에 대한 독립변인들의 영향요인 분석을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여섯째, 매개변수인 직업윤리의식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Baron과 Kenny가 제안한 절차에 따라 회귀분석을 통한 매개효과 분석법을 사용하였다. Baron과 Kenny의 검증방법을 보완하여 매개효과를 추정하기 위해서 추가로 Sobel test를 하였다.

Sobel test의 등식은 $Zab = a^*b/SQRT(b^*Sa^2+a^*Sb^2+Sa^*Sb^2)$ 으로서 Aroian버전이다. Zab의 절대값이 1.96이상일 경우 $p < 0.05$ 수준, 2.58일 경우 $p < 0.01$ 수준, 3.30이상일 경우 $p < 0.001$ 수준에서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본다. 이 방법은 Baron과 Kenny가 제안한 분석방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통계적 오류로 인한 오해석을 막아준다.

교정본부 NEWS

2022 • May Vol. 552

법무부장관, 정책현장 방문



일시·장소 4. 5.(화) 14:30, 소망교도소
방문자 교정본부장, 정책보좌관, 부대변인, 분류심사과장
주요 내용 코로나19 방역 및 민영교도소 기관 운영실태 확인 등

교정본부장, 정책현장 방문



일시·장소 4. 8.(금) 10:00, 청주교도소 / 13:30, 청주여자교도소
주요 내용 코로나19 방역실태 및 수용 관리 등 현장 점검

우수활동 교정위원 감사패 수여식



일시·장소 4. 13.(수) 11:00, 대회의실
참석자 법무부장관, 교정본부장, 교정위원 등
주요 내용 우수활동 교정위원 감사패 수여

광주지방교정청 교정위원의 날 행사



일시·장소 4. 28.(목) 17:20, 제주 아스타호텔
참석자 교정본부장, 광주지방교정청장, 광주지방교정청 교정연합회 소속 교정위원 등
주요 내용 우수활동 교정위원 감사패 수여, 교정본부장 격려 말씀 등

서울지방교정청

서울지방교정청 / 교위 신현태

신규 직원 임용식 개최

서울지방교정청은 4월 25일 신규 직원 임용식을 열었다. 신경우 청장은 신규 직원에게 “진심으로 환영하며 항상 초심을 잊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근무하기를 바란다”며, “직원들과 소통하며 즐거운 분위기를 조성하고, 맡은 업무에 대해 전문가 돼야 한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서울구치소 / 교위 김승일

사랑의 현혈 운동 실시

서울구치소는 4월 21일 코로나19로 확산으로 현혈 감소에 따른 혈액 부족 위기 소식을 듣고 힘을 보태고자 전 직원 긴급 현혈을 실시했다. 수도권 지역의 혈액 보유량이 전국 평균을 밑도는 가운데 교정공무원의 자율적 동참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혈액 수급난 극복에 도움이 됐다.



안양교도소 / 교위 박준석

대체복무제 운영 시작

안양교도소는 4월 11일 대체복무제를 시행했다. 서울구치소 소속 대체복무요원 10명이 평일 주간 안양교도소로 출·퇴근하는 지원 근무 형식으로 운영한다. 대체복무요원들은 보건 위생, 교정시설 내외 환경미화, 급식 보조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수원구치소 / 교사 윤희수

그림 전시회 개최

수원구치소는 4월 19일 민원봉사실 내 문화 공간인 소망갤러리에서 <건암(健庵) 윤여옥 산수·화조화 그림전>을 개최했다. 오는 10월 28일까지 이

어질 이번 전시회는 가족과 지인 등의 교정시설 수용으로 힘들어하는 민원인에게 예술 작품 감상 기회를 제공해 위로와 안정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서울동부구치소 / 교위 이승훈

직원 격려금 전달

서울동부구치소는 4월 4일부터 6일까지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극복을 위해 일선 현장에서 수고를 아끼지 않는 직원들을 위로하고자 부서 및 팀별 격려금을 전달했다. 이번 격려금은 국무총리 격려금과 코로나19 격려금으로 추가 배정된 기타 운영비로 집행했다.

인천구치소 / 교사 이남웅

신규 직원 임용식 개최

인천구치소는 4월 25일 교위시보 최종배 등 3명에 대한 신규 임용식을 진행했다. 최규철 소장은 공직자 윤리 등을 준수하고, 수용자 교정교화에 최선을 다하는 멋있는 교정공무원이 되길 당부했다. 이날 임용된 교위시보 박채원은 “환영해 주심에 감사드린다”며 소감을 전했다.

서울남부구치소 / 교위 김광찬

부활절 기념 떡 기증

서울남부구치소는 4월 15일 교정협의회 기독교 분과로부터 떡 250개를 기부받아 여성 수용자에게 지급했다. 이날 기부는 부활절에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는 여성 수용자에게 위로를 전하고, 안정된 수용 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화성직업훈련교도소 / 교위 이재희

지방기능경기대회 참가 및 수상

화성직업훈련교도소는 4월 4일부터 7일까지 2022년도 경기도 지방기능경기대회 조직, 용접 분야에 3명의 수용자가 출전해 조직 분야 금상과 동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입상한 수용자 2명은 올해 8월 말 경상남도에서 열리는 전국기능경기대회에 경기도 대표로 참가해 전국 기능인들과 기량을 겨룰 예정이다.

의정부교도소 / 교사 채병준
식목일 행사 개최

의정부교도소는 4월 5일 식목일을 기념해 교정시설 주변 환경 정비를 실시했다. 이날 직원들은 “교정시설 주변의 환경을 말끔하게 정비하면서 코로나19까지 떨쳐버린 듯한 기분을 느꼈다”고 소감을 전하며 성황리에 환경 정비와 식목일 기념행사를 마무리했다.



여주교도소 / 교사 홍재성

신규 직원 임용식 개최

여주교도소는 4월 25일 교위시보 윤승현 등 3명에 대한 신규 직원 임용식 및 환영식을 진행했다. 최진규 소장은 “공직 사회에 내디딘 첫 발걸음을 축하하고 여주교도소의 가족이 된 것을 환영한다”며 인사를 전했다.

서울남부교도소 / 교사 황영웅

사랑의 현혈 운동 실시

서울남부교도소는 4월 20일 혈액 수급 안정화와 생명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대한적십자사 서울 중앙혈액원의 협조로 현혈 행사를 진행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혈액 수급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생명 나눔을 몸소 실천하고자 하는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이뤄졌다.

춘천교도소 / 교사 양진호

신규 교정위원 위촉식 개최

춘천교도소는 4월 6일 신규 교정위원 위촉식을 진행했다. 이번 위촉식에서 김현우 소장은 “교정 위원이 되신 것에 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교정행정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축하 인사를 전했다.

원주교도소 / 교위 김승현
자연보호 봉사 활동 실시

원주교도소는 4월 12일 직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봄을 맞아 원주천 일대에서 쓰레기 수거 등 자연보호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박진홍 소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자연보호 봉사활동을 전개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원주교도소가 되겠다”고 전했다.

강릉교도소 / 교위 이준영

서울지방교정청장 정책현장 방문

신경우 서울지방교정청장은 4월 4일 강릉교도소를 방문해 고위험군 수용자 중점 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현장 직원들을 격려했다. 현장을 둘러 본 신경우 청장은 직원들에게 “고위험군 수용자들의 철저한 관리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영월교도소 / 교도 김준일

수용자 물품 기증

영월교도소는 4월 16일 천주교 원주교구로부터 떡 400인분을 기부받아 전 수용자에게 지급했다. 이날 기부는 부활절을 맞아 코로나19 장기화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용자의 심리적인 건강과 수용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강원북부교도소 / 교도 성명제

신규 교정위원 위촉식 개최

강원북부교도소는 4월 5일 2022년도 상반기 신규 위촉된 16명의 교정위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번 신규 교정위원 위촉과 함께 초대 교정협의회를 구성함으로써 인

권의 가치와 법치가 조화를 이루는 교정 현장을 만들어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인사팀이 적극적으로 나서 온라인을 통한 다채널 채용 공고, 현수막 게시, 직원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 등으로 신규 의무관을 채용함으로써 부족한 의료 인력을 충원했다. 오광운 소장은 “책임감을 느끼고, 수용자 건강관리에 힘써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부산구치소 / 교사 김치호

소방 훈련 실시

부산구치소는 4월 20일 화재 진압·인명 대피·응급조치 등 화재 발생에 대비한 대처 요령에 숙달해 실제 화재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자체 소방 훈련을 실시했다. 박호서 소장은 “실제로 화재가 발생해도 이번 훈련처럼 조기 진압 및 화재에 대응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경북북부제1교도소 / 교도 신문용

전입 대체복무요원 환영식 개최

경북북부제1교도소는 4월 4일 대체복무요원을 따뜻하게 맞이하는 전입 환영식을 실시했다. 장종선 소장은 “대체복무요원들의 전입을 환영하며, 이곳에서 지내는 동안 하루하루 희망차고 보람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대체복무요원들을 반갑게 맞이했다.

창원교도소 / 교도 강정훈

소방 훈련 실시

창원교도소는 4월 18일 구외 개방지역청소 작업장에서 소방 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훈련은 각 과자위소방대원을 대상으로 ABC소화기 6대를 실제 분사하는 훈련이었다. 이날 직원들은 훈련을 통해 정확한 소화기 사용법을 숙지했다.

부산교도소 / 교위 박종철

수용자 물품 기증

부산교도소는 4월 18일 부활절을 맞이해 '섬김의 교정선교회'에서 준비한 빵 1,500개를 기증받았다. 20여 년간 변함없이 부산교도소에 선행을 이어온 섬김의 교정선교회 장상만 회장(부산교도소 교정위원)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되고 다시 출발하는 지금이 부활절의 의미를 새롭게 다지는 기회"라며 수용자들을 격려했다.

포항교도소 / 교사 김병수

불우 수용자 가족 지원

포항교도소는 4월 19일 교정협의회로부터 불우 수용자 및 가족 지원을 위한 지원금 480만 원을 받았다. 포항교도소 교정협의회의 이번 기부금은 가정의 달 5월을 앞두고 코로나19 확산 속에서 경제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수용자 가족을 지원하고, 가족의 지원이 없는 수용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것이다.

진주교도소 / 교위 정주영

지방기능경기대회 참가 및 수상

진주교도소는 4월 4일부터 5일간 열린 경상남도 지방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한 수용자 4명 전원 수상이라는 성적을 거뒀다. 대회에 참가한 수용자들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운 여건에서도 방역 수칙을 지키며 전담 직업훈련교사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도로 좋은 결실을 맺었다.



대구구치소 / 교사 김경민

승진 직원 임용식 개최

대구구치소는 4월 4일 6급 교감 승진 임용식을 개최했다. 이날 임용식에서는 승진 직원 4명에게 꽃다발과 함께 임명장과 계급장을 수여했다. 배경석 소장은 승진 직원들에게 "사명감을 느끼며 업무에 임하고, 직원 후배들을 위해서도 솔선수범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천소년교도소 / 교위 조덕래

식목일 행사 개최

김천소년교도소는 4월 5일 식목일을 맞이해 새봄 맞이 대청소와 식목일 행사를 진행했다. 박동수

승진자에게 임용장과 계급장을 수여하고 그간의 노고를 치하하며 승진을 축하했다. 승진자들은 법과 원칙에 입각하여 충실히 업무를 수행하는 등 교정행정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경북직업훈련교도소 / 교도 윤시현

지방기능경기대회 참가 및 수상

경북직업훈련교도소는 4월 4일부터 5일간 열린 경상북도 지방기능경기대회 미장, 타일 종목에 참가해 금메달 2명, 은메달 2명, 동메달 1명 등 전원 수상이라는 성과를 이뤘다.



안동교도소 / 교도 신동관

식목일 행사 개최

안동교도소는 4월 4일 식목일을 앞두고 교도소 주변에 나무심기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오후 2시부터 진행돼 육근우 소장과 직원들 그리고 대체복무요원이 함께 감나무를 심고, 겨우내 쌓인 낙엽을 정리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경북북부제2교도소 / 교사 황지훈

승진 직원 임용식 개최

경북북부제2교도소는 4월 4일 6급 교감 승진 임용식을 개최했다. 이날 임용식에서는 승진 직원 4명에게 꽃다발과 함께 임명장과 계급장을 수여했다. 배경석 소장은 승진 직원들에게 "사명감을 느끼며 업무에 임하고, 직원 후배들을 위해서도 솔선수범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천소년교도소 / 교위 정덕기

보안정책단장 정책현장 방문

김승만 보안정책단장은 4월 6일 통영구치소를

소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답답했던 마음도 함께 씻어 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북북부제3교도소 / 교도 윤정수

수용자 물품 기증

경북북부제3교도소는 4월 26일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이점숙 교정위원으로부터 기부 물품인 데 1,000개를 기증받았다. 해당 물품은 보안과를 통해 수용자에게 지급됐다. 이점숙 교정위원은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수용 생활 속에서 행복한 하루를 지낼 수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증을 결심했다"며 마음을 전했다.

울산구치소 / 교위 황정목

사랑의 현혈 운동 실시

울산구치소는 4월 13일 코로나19로 인한 혈액 수급 위기를 극복하고 현혈 문화 확산을 위한 사랑의 단체 현혈을 실시했다. 최재우 소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국가적인 혈액 수급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단체 현혈을 실시했고,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사회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경주교도소 / 교위 조경동

심리방역 지원 토론회 개최

경주교도소는 4월 8일 코로나19의 장기간 지속 및 확산으로 인한 심리적 불안감과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는 심리 방역 협업 방안을 협의하고자 패널 토론회를 실시했다.

통영구치소 / 교사 정덕기

대체복무요원 심사위원회 방문

김승만 보안정책단장은 4월 6일 통영구치소를

방문해 고위험군 수용자 종점관리 체제 시행 상태를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3월 15일부터 고위험군 수용자 종점관리 체제 시행에 따라 일선 기관의 시행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밀양구치소 / 교위 양원선

간호서기 채용 원서 접수

밀양구치소는 4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대구 지방교정청 일반직공무원 8급(간호서기, 1명) 경력직채용 시험 응시 원서를 접수했다. 이번 채용은 대구지방교정청에서 서류 심사 및 면접을 통해 이달 중 최종 합격자 1명을 발표하고, 6월에 임용을 실시할 예정이다.

상주교도소 / 교위 이상빈

승진 직원 임용식 개최

상주교도소는 4월 4일 6급 근속승진 임용식을 개최했다. 이날 승진한 교감 정하웅 등 5명은 "책임감을 가지고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홍순철 소장은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우리 기관의 발전을 위해 사명감을 갖고 업무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전지방교정청

대전지방교정청 / 교위 이경민

교정이송전담반 창단식 개최

대전지방교정청은 4월 4일 청장실에서 교정이송 전담반 직원 교위 곽정건 등 8명에 대한 신고식 및 환대 행사를 실시했다. 임용식 이후 오찬 간담회를 통해 새로운 업무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직원 간의 소통과 단합으로 새로 시작하는 교정이송전담반의 업무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대전교도소 / 교위 이호현

대체복무요원 심사위원회 방문

대전교도소는 4월 12일 대체복무요원 심사위원회의 방문에 대해 교정시설 내에 있는 대체복무 교육센터 현장을 확인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조경호 위원장 등 6명이 방문해 대체

복무교육센터의 생활공간 및 교육 현장을 둘러봤으며, 현재 대전교도소에서 복무 중인 대체복무 요원과의 간담회를 갖고 애로 사항 등을 청취하는 자리도 가졌다.

청주교도소 / 교위 오요한

교정본부장 정책현장 방문

유병철 교정본부장은 4월 8일 청주교도소를 방문해 수용 관리와 코로나19 고위험군 수용자 방역 실태 및 정책현장을 점검했다. 유병철 본부장은 "본부 및 정책을 만드는 입장에서 현재의 어려움을 반영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천안교도소 / 교사 조영웅

식목일 행사 개최

천안교도소는 4월 7일 제77회 식목일을 맞아 저탄소 녹색 성장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식목 행사를 실시했다. 교정공무원과 대체복무요원이 함께 교정시설 진입로와 청렴동산에 있는 무궁화에 비료 및 거름주기, 가지치기, 잡초 제거, 쓰레기 수거를 실시했다.

청주여자교도소 / 교사 김혜정

교정본부장 정책현장 방문

유병철 교정본부장은 4월 8일 청주여자교도소를 방문해 교정시설 내외 점검을 통한 코로나19 대응 현장 및 방역 실태를 확인했다. 이후 현장 직원 간담회를 통해 직원들의 애로 사항 및 의견을 청취하며 일선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공주교도소 / 교감 노호성

승진 직원 임용식 개최

공주교도소는 4월 4일 교감 승진 직원 4명에 대

한 임용식을 개최했다. 이번 승진자들은 그동안 성실히 근무해 온 업무 공적을 인정받아 6급으로 승진했다. 임용식에 모인 직원들의 축하와 격려를 받으며 기쁜 마음으로 교감 계급장을 어깨에 달았다.

충주구치소 / 교위 송근열

승진 직원 임용식 개최

충주구치소는 4월 4일 교감 승진 직원 6명에 대한 임용식을 개최했다. 이날 임용식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최소 인원이 참석했다. 임용장과 축하 꽃다발을 받은 승진 직원들은 교정행정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홍성교도소 / 교도 정조원

신규 교정위원 위촉식 개최

홍성교도소는 4월 11일 홍성군의회 의원 김현수 위원과 홍성성례교회 목사 최윤종 위원에게 신규 교정위원 위촉장과 꽃다발을 수여했다. 새로이 교정위원이 된 두 사람은 교정에 깊은 애정을 갖고 수용자 교정교화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천안개방교도소 / 교위 강세원

신규 교정위원 위촉식 개최

천안개방교도소는 4월 12일 교정 참여 인사 4명에 대해 신규 교정위원 위촉 및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법무부장관위촉장 전수로 이뤄졌으며, 시설 참관과 간담회를 실시했다.



홍성교도소 서산지소 / 교도 이도진

승진 직원 임용식 개최

홍성교도소 서산지소는 4월 4일 교감 승진 직원 4명에 대한 임용식을 진행했다. 김병호 지소장은 승진

교정기관 NEWS

직원들에게 “계급이 높아진 만큼 그에 맞는 책임 의식 느끼고 솔선수범해 직원들에게 모범이 되는 교정공무원이 돼 달라”며 덕담을 전했다.

대전교도소 논산지소 / 교도 김현수 소방 훈련 실시

대전교도소 논산지소는 4월 15일 화재 사고에 대비해 자체 소방 및 비밀문서 안전 반출·파기 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논산지소 직원들은 실질적인 화재 진압 및 대피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화재 발생 시 대처 능력을 숙지했다.



광주지방교정청

광주지방교정청 / 교위 윤정구 교정이송전담반 창단식 개최

광주지방교정청은 4월 4일 이송 업무를 전담할 광주지방교정청 교정이송전담반 직원들의 신고식과 환영 인사를 나눴다. 교정이송전담반은 이송 업무 전문성을 강화하는 취지로 선발했다.

광주교도소 / 교사 전은주 소외 이웃 정기후원

광주교도소는 4월 22일 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힘들어하는 이웃을 위해 지역 내 사랑 나눔을 실천했다. 광주교도소 직원의 자발적인 참여로 모인 성금으로 총 8가구에 매달 10만 원씩 지원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전주교도소 / 교위 박승훈 봄맞이 환경 정비 실시

전주교도소는 4월 1일 민원실 환경 개선을 위해 봄맞이 화단 조성을 실시했다. 이날 민원인 주차

장 주변 화단에 펜자, 데이지, 라ynos쿨루스를 식재하고 철쭉 가지치기를 하는 등 민원실 주변 환경을 새롭게 조성했다.



순천교도소 / 교위 김기표 지방기능경기대회 참가 및 수상

순천교도소는 4월 4일부터 7일까지 열린 2022년도 지방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해 수용자 6명이 수상하는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순천교도소에서는 이번 대회에 실내 장식과 미장 부분 각 5명씩 총 10명의 수용자가 참가했으며 금상 2명, 은상 2명, 동상 2명의 우수한 결과를 얻었다.

목포교도소 / 교도 김지훈 법무부차관 정책현장 방문

강성국 법무부차관은 4월 5일 목포교도소에 방문해 교정시설 코로나19 방역 실태와 대체복무요원 복무실태를 점검하고 일선 직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 경청했다.

군산교도소 / 교도 김호근 수용자 물품 기부

군산교도소는 4월 4일 군산 이레교회 이남희 목사로부터 송편 1,000개(150만 원 상당)를 기증받아 수용자에게 전달했다. 이남희 목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가 힘든 가운데 조금이나마 수용자들에게 힘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다”며 지속적인 지원 의사를 밝혔다.

위해 식목 행사를 진행했다. 각 부서 직원들은 제주교도소 영농 부지 내 공터에 감귤나무 묘목 16분을 직접 심고 주변을 정리했다.



장흥교도소 / 교도 김민석 식목일 행사 개최

장흥교도소는 4월 5일 제77회 식목일을 맞이해 외부 정문 주변 등에 편백나무 식재 및 비료 주기·환경 정비를 통한 식목일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자연 친화적인 녹색 환경 조성으로 교정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남교도소 / 교도 김호민 봄맞이 환경 정비 실시

해남교도소는 4월 18일 사회적 거리두기 의무화가 해제됨에 따라 시설과 장비를 점검하는 등 봄맞이 환경 정비를 실시했다. 이번 환경 정비는 그동안 중단됐던 각종 교정 관련 행사와 교육 등이 순차적으로 정상화될 것에 따른 조치다.



정읍교도소 / 교사 박승현 정읍지청 업무 현안 공유

정읍교도소는 4월 13일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 이병주 지청장과 검사 4명의 방문을 맞이하고, 업무 현안과 교정시설 운영 현황 및 애로 사항을 공유했다.



강원북부교도소 교감 박영규

박영규 교감은 약 33여년 동안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직원 상호 간의 신뢰를 중시하고 조직의 발전을 위해 헌신했다. 업무를 수행하면서 솔선수범하는 근무 태도로 선배를 공경하고 후배 직원을 챙겼으며, 인문학 교육을 담당하면서 명심보감을 활용해 수용자들의 마음 수양에 도움을 줘 정서적 안정과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이바지했다. 또한 수용 관리와 수용 질서 확립에 노력하는 등 교정행정 발전에 기여했다.



경북북부제1교도소 교도 황인욱

황인욱 교도는 현재 경북북부제1교도소 보안3부 중앙통제실 근무자로서 2022년 3월 17일 중앙통제실 근무 중 수용동 거실을 감시하다가 오전 12시 7분경 수용자 한 명이 회장실에서 내의로 올가미를 만들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하는 것을 발견했다. 즉시 해당 수용동 담당 근무자에게 상황을 알려 담당 근무자 및 수용관리팀 직원이 곧바로 해당 거실에 출동했으며 교정사고를 방지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청주여자교도소 교감 최종목

최종목 교감은 보안 장비 사용법을 타 직원에게 교육해 사용 미숙으로 인한 안전 문제와 교정 사고 발생을 사전에 방지했다. 또한 당직교감으로 근무하던 중 공황장애와 간질환을 앓고 있는 수용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상황을 발견하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해 인명 사고를 막았다.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는 재난 관련 물품을 사전에 구입해 예산 절감에 기여하고 유증상 직원을 대상으로 신속항원검사를 진행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했다.



순천교도소 시설주사 제중권

제중권 시설주사는 순천교도소 복지과에 근무하면서 시설 및 국유재산 담당자로서 순천교도소 시설 유지 및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다. 최근에는 대체복무요원 생활관 리모델링과 직원 근무자실 그리고 민원실의 환경 개선을 담당했으며, 수용동의 회장실 개수 등에도 성실히 임했다. 늘 교정시설 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교정행정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2001년과 2017년에 법무부장관상을 받는 등 다른 교정공무원들에게 모범이 되고 있다.



독자 퀴즈

함께 나온 인물 연결하기

아래 사진은 월간 <교정>의 각 코너에 등장한 인물들의 사진입니다. 같은 코너에 등장한 파트너를 찾아 바르게 연결해 주세요. 정답을 보내 주신 분께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예) A-3, B-1과 같은 방식으로 관련 사진끼리 연결해 주세요.

A



1

B



2

C



3

D



4



정답 보내는 곳

월간 <교정> 편집팀 이메일 (correct2015@naver.com)

참여방법

퀴즈 정답을 이메일로 송부

꼭 기재해 주세요! 이름, 소속, 직급, 연락처

독자 퀴즈 및 이벤트 참여자 혜택 해피머니 1만 원권 발송



QR코드를 통해서도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정책·공약
정책·공약 확인
후보자 정보 확인
후보자 투표의
다시보기

policy.nec.go.kr

정책과 공약을



※ 정책·공약마당 바로가기
policy.nec.go.kr

꼼꼼히 확인하면

온
동네가
밝아집니다.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선거일 투표 | 6월 1일(수)

사전 투표 | 5월 27일(금)~28일(토)

자세한 선거정보 등 확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 nec.go.kr 방문



월간 <교정>이 교정공무원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합니다!

월간 <교정>은 교정공무원의 참여로 만들어집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보내 주시거나 다양한 코너에 직접 참여해 보세요.

색다른 경험을 선사하며, 소중한 일상을 특별하게 기록해 드립니다.



나도 패션왕

메이크업과 헤어 스타일링, 코디를 통해 평범함을 벗어 던지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신해 보는 코너입니다. 흔치 않은 기회를 통해 멋진 사진과 잊지 못할 추억을 남겨 보세요.



의정부교도소 교감 염웅렬



소망교도소 주임 배송철



홍성교도소 교위 이성덕,
교위 김부경 부부

교정의 일기

에세이, 시, 그림, 서예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교정공무원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업무 또는 일상에서 경험한 다양한 이야기를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원고료: 상품권 10만 원)



<코로나19와의 전쟁을 승리로 이끈 숨은 공로자> - 대구교도소 교위 김현석



<마음만 받겠습니다>
- 서울구치소 교위 문규종

월간 <교정>의 다양한 콘텐츠에 참여해 주세요!

참여 방법

방법 1 메일(correct2015@naver.com)로 참여를 원하는 신규 콘텐츠와 인적사항 등 발송

방법 2 QR코드 스캔 후 독자 참여 페이지를 통해 참여하고 싶은 신규 콘텐츠와 설문조사 진행

QR코드를 스캔해
참여해 주세요.

